

# 1920년대 충북지역 청년회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장승순\*

- I. 머리말
- II. 충북지역 청년회운동의 배경
  - 1. 사회적 배경
  - 2. 경제적 배경
- III. 전반기 청년회의 설립과 활동 (1920~1925)
  - 1. 청년회의 설립
  - 2. 청년회의 활동
  - 3. 사회주의의 수용과 청년회운동의 분화
- IV. 후반기 청년회운동의 성격 전환과 활동 (1926~1930)
  - 1. 청년회운동의 성격 전환
  - 2. 신간회 지회 설립 운동
  - 3. 광주학생운동 동참 운동
- V. 맺음말

## I. 머리말

1920년대 전반기의 청년<sup>1)</sup>들은 민족해방운동 공간에서 민족해방을

---

\* 충북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위한 새로운 이념의 수용과 전파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계급적 인식을 부각시키며, 대중운동을 선도하는 민족운동의 주체적 역할을 하였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청년들은 민족협동전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운동방향을 전환하여 전 민족적 차원에서 청년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농민·학생·여성·형평운동을 비롯한 다른 부문운동과도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민족협동전선체인 신간회 운동의 확대 전개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그들의 활동을 연구하는 청년운동은 1920년대 사회운동의 연구의 한 부문분야가 되었다.

청년운동에 관한 연구는 1920년대와 1930년대 초부터 시도되었으나, 이것은 청년운동에 관한 내용을 신문이나 잡지에 매년 말 혹은 신년 초에 다른 부문의 사회운동과 함께 소개할 정도의 조사 차원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청년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sup>2)</sup>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중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운동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그 연구들은 첫째, 청년단체를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누어 청년단체와 그 활동을 신문자료에 의존해 정리하거나,<sup>3)</sup> 둘째, 청년운동을 초기 공산주의 운동의 형성 과정 내지는 공산주의운동 그 자체로서만 설명하려 했고,<sup>4)</sup> 셋째,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을 고정관념화 시켰으며,<sup>5)</sup> 넷째, 학

---

1)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이란 근대적 개념으로서 특정한 계급·계층을 가리키거나 사회경제적 구성에 의해서 범주화된 집단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계급·계층에 속해 있으면서 청년 일반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예컨대 노동청년, 농민청년, 학생청년, 여성청년 등을 포함하는 소년과 청년 사이에 놓인 계층을 말한다.

2) 선우기성, 1973, 『한국청년운동사』, 금문사.

3) 대표적으로는 조찬석, 1991, 「1920년대 충청지방의 청년운동」, 『인천교대 논문집』 25 ; 조찬석, 1985, 「1920년대 경상남도지방의 청년운동」, 『인천교대 논문집』 19 등을 꼽을 수 있다.

4) 김준엽·김창순, 1969,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생운동의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갖는 선도성이나 순수성을 강조하며 항일 민족운동에서 청년들이 갖는 대표성을 밝히려 한 것이었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경향은 거의 공통적으로 시대적 영향에 따라 청년운동의 고유한 성격이나 전체 운동에서 청년운동이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데올로기적 잣대에 의해 청년운동을 ‘민족운동’이나 ‘공산주의운동’의 일환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7)</sup>

청년운동은 지역에 기반을 둔 청년들에 의해 전개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지역 사례의 사회운동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공간을 군 지역 단위로 연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sup>8)</sup>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 같이 사회운동이 활발했던 남부지역은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청년운동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그 단위도 도까지 확대하는 연구도 하였다.<sup>9)</sup>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충북지역에도 지역 청년회가 붓물 터지듯이 생겨나 1930년까지 초까지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였다.<sup>10)</sup> 충북지역 청

5)金森襄作, 1977, 「朝鮮靑年會運動史」, 『朝鮮學報』 85.

6) 김성식, 1971, 「일제하 한국학생운동」, 『일제하민족운동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정세현, 1975, 『항일학생민족운동사연구』, 일지사.

7) 박철하, 1995, 「한국 청년운동사의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26쪽.

8) 한국역사연구회, 1995,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 박전우, 2001, 「일제하 수원지역의 항일독립운동연구」, 『지역연구』 10 ; 김승, 2000, 「일제하 한말 동래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6 ; 심상훈, 2012, 「일제 강점기 의성지역의 청년운동과 성격」, 『조선사연구』 제21호 ; 김일수, 2012, 「일제 강점기 김천지역의 사회운동」, 『계명사학』 제23집 ; 김승, 2005, 「일제하 안양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성장과 발전」, 『부대사학』 제28-29집 ; 김승, 2004, 「일제하 양산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제14호.

9) 조찬석, 1991, 「1920년대 충청지방의 청년운동」, 『인천교대 논문집』 25 ; 조찬석, 1985, 「1920년대 경상남도지방의 청년운동」, 『인천교대 논문집』 19 ; 김일수, 1995, 「1920년대 경북지역 청년운동」,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 허중, 2010, 「1920년대 충남지역의 청년운동」, 『역사와 담론』 제55집 ; 김점숙, 1993, 「1930년대 전반기 전남지방의 조공제건운동과 혁명적 대중운동」,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여강출판사.

년들도 지역 청년회를 설립하여 당시 유행하는 사상 등을 수용하여 그 사상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운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 했다.

그러나 1920년대 충북지역 청년운동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고, 그나마 청년운동에 대한 연구가 있다면 그것은 단독적인 청년운동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다른 부문운동과의 관련 속에서 청년운동을 살펴보고 있을 뿐이다.<sup>11)</sup> 따라서 1920년대 충북지역에서 전개된 청년운동이 지역사회의 민족운동으로서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본고에서는 1920년대를 전·후반기로 나누어 1920년대 전반기 청년회를 조직한 주체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떠한 활동을 전개했고, 어떤 방식으로 신사상을 수용하며 그들의 활동을 대외적인 활동과 연관시키려 했는지를 살펴보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청년회가 사상성을 바탕으로 어떠한 대·내외적인 활동을 전개하려 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그리하여 1920년대 충북지역 내에서의 청년운동이 지역 사회운동을 얼마나 고양시키고 그 내용을 풍성하게 했는지를 밝혀, 청년운동의 주체인 청년들이 충북지역 사회 민족운동에 온전한 자리매김 해주고자 한다.

## II. 충북지역 청년회운동의 배경

---

10) 충북지역의 1930년대 청년운동에 관한 연구는 주계윤, 2011, 「1930년대 충북지역 관제청년단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0집이 유일하다.

11) 전순동, 1999, 「일제기 청주지방의 민족교육운동-청남학교를 중심으로」, 『중원문화논총』 제2,3합집 ; 박걸순, 2012, 「일제강점기 충북지역의 학생운동」, 『충북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 강호출, 1991, 「식민지시대 충북영동지역 농민운동연구」, 『사충』 제39집 ; 장승순, 2013, 「일제강점기 충북지역의 농촌사회의 변동과 농민운동」, 『중원문화연구』 제20집.

### 1. 사회적 배경

충청북도는 1895년 道를 없애고 全道를 23府로 각각 나누어 관찰사를 두어 다스리게 할 때 충주부에서 관찰하다가 1896년 또 다시 부를 없애고 13도를 설치할 때 비로소 충청북도라 칭하고 충주를 도청소재지로 정했다. 1908년 도청소재지를 청주로 옮겨 18군 199면을 관할케 했고, 1914년에는 군, 면의 廢置分合을 단행하여<sup>12)</sup> 10군 110면으로 제도를 두었다.<sup>13)</sup>

<표 1> 충북지역의 지방 행정 구역

군명	면수	동리	읍·면 명
청주	17	335	청주, 사주, 낭성, 미원, 가덕, 남일, 남이, 문의, 현도, 미용, 강서, 강내, 강외, 옥산, 오창, 북이, 북일
보은	10	178	보은, 속리, 마노, 탄부, 삼승, 수한, 회남, 회북, 내북, 산외
옥천	9	125	옥천, 동이, 안남, 안내, 청성, 청산, 이원, 군서, 군북
영동	11	131	영동, 용산, 황강, 황금, 매곡, 상촌, 양강, 용화, 학산, 양산, 심천
진천	7	79	진천, 덕산, 초평, 문백, 백곡, 이월, 만승
괴산	14	153	괴산, 감물, 장연, 상모, 연풍, 칠성, 문광, 청천, 청안, 증평, 도안, 사리, 소수, 불향
음성	9	112	음성, 소이, 원남, 맹동, 대소, 삼성, 금왕, 생극, 감곡
충주	13	145	충주, 사미, 이유, 주덕, 신니, 노은, 앙성, 가금, 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대
제천	9	137	제천,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 백운, 봉양, 송학
단양	7	109	단양, 대강, 가곡, 영춘, 어상천, 매포, 적성

- 12) 구한말 지방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윤정애, 1984, 「한말(1894~1905) 지방제도 개혁의 연구」, 연세대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상찬, 1985, 「1906~1910년 지방 행정제도의 변화와 그 성격」, 서울대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상찬, 1991, 「한말 지방자치 실시논의와 그 성격」, 『역사비평』 계간13호 ; 염인호, 1984, 「일제하 지방통치에 관한 연구-조선면제의 형성과 운영을 중심으로」, 연세대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등을 참조할 만하다.
- 13) 1914년, 法令 第一號, 『面制』에 의거하여 ①면은 법령에 의하여 면에 소속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면의 사무는 면장이 담임한다. ③총독부가 지정하는 면에 相談役을 설치한다(당시 23면을 지정하였다-당시 충북지역의 지정면은 청주가 유일하였다가 후에 충주지역도 지정면이 되었다). 상담역은 면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도장관이 그를 임명한다는 원칙으로 행정구역의 廢置分合을 단행했다(朝鮮總督府, 1934, 『朝鮮の聚落』(前篇), 546쪽).

자료: 忠淸北道, 1928, 『忠淸北道要覽』, 行政印刷株式會社, 56쪽 ; 忠淸北道, 1932, 『道勢一斑』, 1쪽.

즉 청주는 충북지역의 도청 소재지로서 읍면 수 17, 동리 수 335이었고, 충주가 읍면 수 13, 동리수가 145 이며, 괴산이 읍면수 145, 동리수가 153으로 청주, 충주, 괴산지역은 조선시대 이래 행정중심 구역으로 충북을 대표하는 지역이었다.<sup>14)</sup>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27년 현재, 조선인이 819,351명, 일본인이 7,448명, 외국인이 1,063명 등이었지만, 인구 총수는 조선 전국의 12위<sup>15)</sup>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었다.

<표 2> 충청북도 인구 수(1927년 12월말 현재)

지역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청주	158,785	3,325	23	162,373
보은	68,451	254	77	68,782
옥천	71,427	497	100	72,024
영동	81,800	995	127	82,922
진천	44,297	172	87	44,556
괴산	100,909	466	112	101,487
음성	66,342	242	104	66,688
충주	102,869	1,062	123	104,054
제천	77,982	291	53	78,326
단양	46,489	144	17	46,650

14) 1929년 당시의 통계자료에는 동리수가 1,517곳이었으나 면 통폐합의 일환으로 1504곳으로 통폐합되었다(朝鮮總督府, 1934, 『朝鮮の聚落』(前篇), 665쪽).

15) 1930년 충북 10군의 인구는 900,226명으로서 조선 전체 인구 21,058,305명에 대하여 4.27%에 해당하고 13도 중 12위에 있다. 그것을 1925년 4.34%에 비교하면 본도의 인구는 전조선 인구에 대한 비율이 줄은 것으로 그 순위는 의연하게 12위에 이르는 것이다(조선총독부, 1930, 『조선국세조사보고』 도편-충청북도, 1쪽).

합계	819,351	7,448	823	827,862
----	---------	-------	-----	---------

자료: 忠淸北道, 1928, 『忠淸北道要覽』, 行政學會印刷所, 5쪽.

도내 각 군의 인구 분포를 보면 그 수위를 점하는 것은 청주이고, 그 다음이 괴산, 충주로 10만 명이 넘고 그 다음은 영동, 제천, 옥천, 보은, 음성, 단양의 순이며, 진천이 최소이다. 청주가 도청 소재지답게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충북지역민들의 출생지를 살펴보면 충북지역 거주자 중 충북지역 출생자는 93.5%에 속하였다.

그러면서 그중에 대부분도 자면생으로 충북지역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상 때부터 살던 곳에서 출생하여 그대로 그 지역에 머물며 살고 있었다.

<표 3> 충북지역민의 출생지 현황

출생지		남	여	총수
도내생	자면생	314,317	225,031	539,348
	타면생	85,427	135,701	221,128
타도생		59,556	73,287	132,843
일본생		2,904	2,686	5,590
기타생		1,134	183	1,317
총 합계		483,338	436,888	920,226

자료: 조선총독부, 1930, 『조선국세조사보고』 (충청북도), 9쪽.

1925년 청주가 유일하게 1만이 넘는 도시였고, 1932년에는 청주에 이어 영동이 1만이 넘는 도시로 성장했을 정도다.<sup>16)</sup> 충북지역의 대부분 마을들은 소규모 散村이었고<sup>17)</sup> 이러한 마을 중 대부분은 同族村落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sup>18)</sup>

그렇다면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교육수준은 어떠했을까? 반드시 독서 수준으로 교육수준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래의 표는

16) 李如星: 金世鎔, 1932, 『數字朝鮮研究』 제5집, 世光社, 75쪽.

17) 朝鮮總督府, 1934, 『朝鮮の聚落』(前篇), 275쪽.

18) 朝鮮總督府, 1934, 앞의 책, 277쪽.

그 해답을 제시한다.

<표 4> 충북지역민의 독서 교육 수준

문자 수준	남	여	총수
일본어, 한글 해독자	40,382	5,191	45,573
일본어 해독자	2,706	2,883	5,589
한글 해독자	96,563	28,537	125,100
모두 미해독자	323,687	400,277	723,964
합계	463,338	436,888	900,226

자료: 조선총독부, 1930, 『조선국세조사보고』 (충청북도), 10~11쪽.

충북지역민 총인구 중 80.4%는 문자조차도 해독하지 못하는 무학자였고, 한글을 어느 정도 쓸 줄 아는 이들이 13.9%, 한글과 일본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0.6%에 불과했다. 더욱이 남자들의 경우에도 69.8%가 한글 및 일본어를 읽을 수 없는 문맹수준이었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 비중이 높아져서 91.6%가 문맹 수준이었다.

## 2. 경제적 배경

일제에 의한 통계에 따르면, 1930년대 충북지역 거주민들 중 직업이 있는 유업자가 41%이고 직업을 갖지 못한 무업자들이 59%였다. 그 직업인들 중에서 남자는 61% 정도였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19%에 불과했다.<sup>19)</sup> 이렇게 무업자가 많은 가운데 직업을 가진 지역민들의 직업은 아래와 같다.

<표 5> 직업 종사별 분류(1930년 현재)

직업	총수	남	여	백분율	
				남	여
농업	320,044	251,553	68,491	88.1	78.1
수산업	73	70	3	0.2	0.003
광업	361	360	1	1.3	0.001

19) 朝鮮總督府, 1930, 『朝鮮國勢調查報告』(忠清北道), 12쪽.

공업	11,935	6,638	5,297	2.3	0.6
상업	17,903	9,237	8,666	3.2	9.8
교통업	1,539	1,508	31	0.5	0.003
공무자유업	5,211	4,794	417	0.1	0.04
가사사용인	3,982	962	3,020	0.03	0.3
기타	12,055	10,335	1,720	0.3	0.1
합계	373,103	285,457	87,646	96.03	88.947

자료: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忠淸北道), 1930, 14쪽.

충북지역은 전체 직업자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88%를 넘었고, 그 다음 3%정도의 사람이 상업에 종사하고, 다시 3% 정도의 사람이 공업과 광업에 종사할 정도였다. 그리고 공무자유업이나 교통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0.6%에 불과했다.

통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충북지역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존재형태는 어떠한가? 충북지역 농민들의 농지소유 규모 및 농가 종류를 살펴보면

<표 6> 충북지역 농가 종류

연도	지주		자작	자작 겸 소작	소작	화전	계
	갑	을					
1921	392	3,668	14,995	54,352	60,452		133,859
1927	383	3,174	16,299	48,279	64,545	458	133,128
1933	587	2,601	14,763	33,113	85,767	1,471	138,203

자료: 朝鮮總督府, 1931, 『朝鮮の小作慣行』, 32쪽 : 朝鮮總督府農林局, 1935, 『朝鮮農地年報』 제1집, 141쪽.

충북지역 농민은 1921년 지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3.03%였다가 1933년에는 2.3%로 줄었다. 자작농의 경우는 변화가 없지만, 자작 겸 소작농은 40.6%에서 1933년에는 24%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소작농은 45.2%에서 1933년 62.1%로 급격히 늘어나 1933년 당시 자작 겸 소작농과 순수 소작농이 차지하는 비율은 86.1%를 능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충북지역 농민들은 86%이상의 농민이 소작 및 자·소작농인 이른

바 영세 소농민였던 것이다.

그러면 상공업의 상황은 어떠한가? 일제에 의한 식민자본이 유입되면서 충북지역에도 각종 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은행 및 회사의 설립 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7> 충북 지역 은행 및 회사 현황 (1931년 현재)

종별	회사수	자본금	불입자본금	체적립금	순이익
상업	4	8,068,000	27,400	2,400	4,216
은행, 금융업	6	69,175,000	120,000	20,150	12,216
운수업	5	56,200,000	420,000	8,800	14,000
와사, 전기업	3	2,000,000	-	-	-
계	18	134,443,000	567,400	31,350	17,205

자료: 忠淸北道, 1932, 『道勢一斑』, 10쪽.

충북지역에 위치하는 회사들은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불과했고, 교통의 발달에 기인한 운수회사 정도였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이식에 의한 농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고리대업으로 볼 수 있는 은행 및 금융업 종류의 회사가 6곳 설립되었을 뿐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충북지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재래시장 상황은 어떠했을까? 1931년 당시 충북지역 시장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 8> 충북지역 시장 현황(1931년 현재)

년도	시장 수	회수	매매고					시장 매매고
			농산물	수산물	철물	축류	잡류	
1912	55	-	337,240	12,012	277,068	423,888	266,070	21,055
1926	57	3,400	1,173,245	351,188	750,280	1,426,289	603,348	81,376
1931	58	4,063	1,722,499	574,710	985,622	1,170,495	790,175	90,405

자료: 忠淸北道, 1932, 『道勢一斑』, 11쪽.

충북지역 전통시장은 1912년과 비교하여 1931년에는 그 수가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생산물이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거래되는 품목도 농산물, 수산물, 철물, 축류 등에 한정되어 아직도 전통적인 시장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한편, 충북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도 전통적인 면포와 마포가 주를 이루고 여기에 종이 도자기 등과 가마나 새끼 등이 첨가되어 있는 단순 수공업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공업 역시 전통적인 방법에서 하나도 발전하지 못한 경우에 속한다고 하겠다. 충북지역의 수공업비율은 그 생산량이 총액대비 2%에 불과해 공업이나 수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sup>20)</sup>

이렇게 충북지역은 1920년대 근대화의 과정에서 벗어나 그냥 조선 이래의 사회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곳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교육이나 문명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 가난한 농민들이었다.

### Ⅲ. 전반기 청년회의 설립과 활동 (1920~1925)

#### 1. 청년회의 설립

1919년 10월, 일제는 3·1운동의 여파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조선인들에게 제한적이지만 집회·결사의 자유가 허용하였다.<sup>21)</sup> 이후 조선인들은 각종 단체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그 속도는 폭발적이었다.

20) 李如星·金世鎔, 1932, 앞의 책, 世光社, 18쪽.

21) 일제가 표방하는 '문화정치'는 조선 내에서 민족 운동을 말살하고, 친일파를 양성하고 보호, 이용하려는 우민화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강동진, 1980, 앞의 책, 한길사, 163~169쪽).

청년의 모임은 전국에서 하루에 적어도 10여 처씩이요, 현금 서울에서만도 남녀 청년모임은 70여 처나 되어 제각기 활동을 하고 날마다 강연이니 연설이니 하여, 밖으로는 사회의 깊은 잠을 깨우기에 힘쓰고, 안으로는 자체수양에 힘쓰고 있다.<sup>22)</sup>

그야말로 하루에도 10여 곳의 청년단체들이 당시 한 기자가 지적하듯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충북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각종 청년단체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표 9> 충북지역 단체조직 현황(1920~1922)

단체별	1920	1921	1922
사회		1	1
노동	2	5	5
청년회	10	10	12
종교관계 청년회		4	3
종교유사단체	45	55	29
소작인회			2
학사		1	
산업	8	13	11
사교		3	4
부인회		1	1
기타	1		2
합계	66	93	70

자료: 朝鮮總督府警務局, 1927, 『朝鮮の治安狀況』, 91쪽.

충북지역에서도 종교 및 종교 유사단체가 압도적으로 설립되면서 그 뒤를 이어 청년회, 산업 및 노동단체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지역의 종교인들 중 기독교인들은 예수교 청년회, 기독교 청년회, 엽젯 청년회로 대표되는 기독교 단체를 설립하였고, 이에 뒤질세라 천도교인들도 지역 명칭을 띠는 천도교 단체를 설립하였다.

22) 『동아일보』 1920년 6월 30일.

이때 1920년대 이전부터 외부에서 이중각<sup>23)</sup>이나 신백우<sup>24)</sup>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노동공제회 청주지회를 설립하였다.<sup>25)</sup> 조선 노동공제회의 창립은 지역민의 환영을 받아 청중 6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sup>26)</sup>

그러나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지주들은 송병준이 창립을 주도한 조선소작인상조회를 “소작인을 보호해서 지주, 소작인 서로의 이익 증진”을 표방하며 청주에 조선소작인상조회 지회로 설립하였다.<sup>27)</sup>

지역 청년회도 1920년 초부터 청주지역을 시작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청주지역에서는 친일적인 지역유지들 95명이 ‘청주구락부’를 조직하여 지역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자,<sup>28)</sup> 민족운동에 뜻이 있는 지역유지 및 청년들 200여 명이 청주보통학교에 모여 청주청년회 발기대회를 갖고,<sup>29)</sup> 1920년 6월 29일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청주청년회를 설립하였다.<sup>30)</sup>

동년 7월 11일에는 제천지역에서도 제천지역의 유지인 이은영, 이관영, 박노태, 김호환, 이고준 등이 발기하여 제천 청년의 ‘지·덕·체 3육 발달’, ‘실업 장려’, ‘관습 개선’을 목적으로 제천 공립보통학교 내에

23) 「이중각 외 4인 판결문」, 대정9형공제1358호, 1920년 12월 23일.

24) 강만길·성대경 엮음, 1996,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225쪽.

25) 전명혁, 2006,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 운동연구』, 선인, 135쪽.

26) 『동아일보』1920년 6월 30일. 이날은 노동공제회 본부의 김광제를 비롯하여 청년회 소속의 김영식이 「노동계의 친선」로 강연하고, 청년회의 간부인 김태희가 내빈 축사를 하였다.

27) 소작인 상조회는 1920년 8월 27일 송병준이 아들 송종현, 이만승 외 20명을 발기인으로 해서 조직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격화될 농민운동에 대하여 소작쟁의를 미리 방지하거나 파괴하기 위해서 당국과 지주층이 중심이 되어 만든 조직이었다(강동진, 1980, 앞 책, 한길사, 238~239쪽).

28) 『매일신보』 1920년 3월 14, 23일. 청주지역 유지들은 3·1운동 이후 조선의 독립을 억제하고 한일 양국간의 상호융합을 표방하며 청주자제회를 조직하였다. 이때 청주자제회를 주도하던 이들은 조선인으로는 민영은, 안정동, 원광환, 한성교, 방인혁 등이었고, 일본인으로는 길원치삼랑, 송본빈, 재등금장 등으로 청주를 대표하던 지역유지들이었다.

29) 『매일신보』 1920년 6월 16일.

30) 『동아일보』 1920년 6월 25일.

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으로는 이희직을 선출하였다.<sup>31)</sup>

영동지역에서는 동년 8월 영동지역의 다수의 청년이 구름처럼 모인 상태에서 “지방 인사의 찬조를 표하는 의견금이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영동청년회를 창립하였다.<sup>32)</sup>

괴산지역에서도 동년 8월 5일 괴산지역 청년유지 유문규, 송종태 외 10명의 발기로 괴산면 야소교회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sup>33)</sup>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 청년회를 설립한 주체는 누구인가? 아래의 표는 1920년대 초 충북지역의 청년회에 설립하고 직접 이끌어 가던 간부들의 현황이다.

<표 10> 1920년대 초반 충북지역의 청년회 간부

군명	명칭	청년회 간부 명단
청주	청주청년회	장:유세면, 부:김태희, 총:김영식, 서:김희철, 교:이중갑, 강:김종원, 채:정용화, 교:정규택, 평:이동현, 민대식, 최륜 등 (1920.6.19), 장:김태희, 부:정규택, 총:정용화(1922.9.23)
괴산	괴산청년회	장:유홍규, 총:김영규, 덕:김사원, 지:유문규, 채:김태웅 (1921.4.16.), 장:이재익, 김순기, 김규웅(1923.5: 제4회 정기총회) 장:김태웅, 총:홍원식, 서:유중수, 덕:김인식, 지:김서웅, 채:유용규, 재:송언섭, 평:이재익(1923.9.5)
제천	제천청년회	장:이은영, 총:이재배, 이관의, 박노태, 김학간, 이교준, 윤갑, 박석양, 신경휴, 이건복, 이영필(1920.8.18), 장:이희직(1925.12.27)
영동	영동청년회	장:장준,(초대:육병세) ,부:이재영, 덕:김행하, 학:김극수, 채:성동만(1922.1.29), 장:육병세, 부:박정훈, 지:김극수, 채:성동만, 산:박건성, 기:장준(1923.4.28), 집행위원: 장준, 김행하, 육병세, 박건하, 송익현, 김두수, 박정훈, 송순현, 김덕중, 이경노, 이일영, 김극수, 성락현(1923.7.14)

31) 『동아일보』 1920년 7월 22일.

32) 『동아일보』 1922년 2월 7일.

33) 『동아일보』 1920년 8월 18일.

옥천	옥천청년회	장:안병삼, 총:이대재, 리:김규희, 임선재, 이준호, 지방 간사:이기하, 김관준 외 18인, 평:이태식, 황룡태 외 6인 (1925.9.27)
보은	보은청년회	최병철, 이태형, 구락서 창립(1921), 장:박치호, 회원:김 학수, 구락서 기타(1927.3.27)
음성	삼영회	장:오대목, 부:박승호, 총:조동환(1920.8.23)
	음성청년회	준비위원:정진복, 정해현외 3인(1928.8.10)
진천	진천청년회	장:한상혁, 부:박승기, 총:박종영, 서:김병희, 재:성○영, 문: 이규석, 산:이정희, 운:박성희(1928.5.30)

자료: 선우기성, 1973, 『한국청년운동사』, 금문사, 319~323쪽.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주청년회 같은 경우 간부진으로 회장은 유세면, 부회장은 김태희, 총무 김영식, 김희철, 김종건, 평의원은 이동현, 김희철, 민대식, 최륜, 박남두, 이중각, 임성록, 배노성, 이희준, 홍영분, 엄관○, 김정현, 박○동, 신용식, 이중갑, 서기 박영동, 정규택, 서무부장 김영식, 재무부장 김희철, 교육부장 이중갑, 강연부장 김종원, 체육부장 정용화, 교풍부장 정규택, 간사 이희준, 임성록, 이○균, 한철현, 김응삼 등이었다.<sup>34)</sup>

그런데 이들 중 회장인 유세면은 전직 관료 출신이었고,<sup>35)</sup> 부회장인 김태희는 신문기자 경력이 있는 사립 청남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sup>36)</sup> 그리고 실질적인 청년회 활동을 담당하는 민대식, 이중갑, 박영동, 정규택 등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청주지국 신문기자들이었다.<sup>37)</sup>

괴산청년회의 경우에도 회장 유흥규는 괴산지국 『동아일보』 지국장이었으며,<sup>38)</sup> 실무 활동가인 유동규, 유문규, 김인식, 유증수 같은 경우에도 『동아일보』 괴산지국 신문기자였다.<sup>39)</sup> 진천청년회 같은 경우에도 회장인 한상혁, 총무인 박종영, 문예부의 이규석 등도 진천지역 신문

34) 『동아일보』 1920년 6월 24일.

35) 『매일신보』 1920년 4월 17일.

36) 김현구, 2006, 『애국지사 일석 김태희』, 2006, 71~83쪽.

37) 『동아일보』 1921년 12월 7일.

38) 『동아일보』 1927년 10월 30일.

39) 『동아일보』 1920년 8월 28일.

기자였다.<sup>40)</sup>

영동청년회의 경우 회장인 육병세는 심천면장 출신이었다.<sup>41)</sup> 그 이외에 영동청년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집행위원들은 출신성분이 어떠한가?

<표 11> 영동청년회 간부 현황(1920)

이름	청년회에서 역임했던 직책	비고
박건하	산업부장	동아일보 지국장
송익현	집행위원	지주, 공영사 주주
송순현	상동	지주
김덕중	상동	공영사 주주
정환수	상동	상동
전덕표	상동	양조장 경영
이경로	상동	지주, 면장
송진현	상동	지주
손재하	상동	지주, 공영사 사장

자료: 『동아일보』 1920년 6월 30일 ; 『조선일보』 1920년 6월 30일.

영동청년회의 산업부장 박건하는 『동아일보』 지국장이고 이하 집행위원들도 모두 공영사 사장을 비롯하여 주주, 지주, 면장, 양조장 경영 등으로 그야말로 그들은 영동 지역사회의 유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sup>42)</sup>

그러나 1922년 영동청년회의 회장이 되는 장준과 김행하, 김두수, 김극수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달랐다. 장준은 영동보통학교를 졸업하

40) 『동아일보』 1928년 3월 6일.

41)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 1923년판.

42) 박철하, 2007,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3쪽. 초기 청년단체들은 지주, 상공인, 관청의 임원 등 지방 유지들의 금전, 토지, 가옥 등을 물질적 기반으로 하여 청년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회로 하여금 운영비나 주요 사업비를 청년자신들의 회비로서 주체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지방유지의 기부금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많은 돈을 기부한 유지는 간부가 되거나 청년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고 경성임시 토지조사국에 근무하다가, 약간 기독교 구세군에서 활동하고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계몽운동에 종사하는 영동청년회의 설립을 주도했던 인물이다.<sup>43)</sup>

김두수는 영동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고학을 목적으로 동경으로 유학하여 正則영어학교에 입학하였다가 귀향하여 계산학원 및 배성학원 교사를 하였다.<sup>44)</sup> 그 무렵 서울에서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는 이영(서울파·필자주) 등과 교류 중에 공산주의에 공명하며 청년회 활동에 투신한 인물이었다.<sup>45)</sup> 김행하나 김극수<sup>46)</sup>도 영동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청주와 서울 등지로 유학하며 신사상을 습득한 혁신적인 청년들이었다.<sup>47)</sup>

이렇게 청년회를 설립한 이들은 그 지역의 유지들과 신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사상을 수용한 청년이었다. 즉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던 지역 유지들과 교육을 통하여 신사상을 수용한 청년들이 연합하여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의 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역 청년회를 조직하게 된 것이다.

## 2. 청년회의 활동

1920년 설립된 지역 청년회들은 당시 ‘신사조’의 실천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따르려 하였다. 청년회가 추구하는 ‘신사조’는 ‘신조선·신문화건설’을 표방하는 문화운동의 실천이었다.

그 문화운동은 ‘실력양성론’, ‘정신개조’, ‘민족개조론’을 표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수양, 신교육보급, 풍속개량, 농촌개량의 네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었다.<sup>48)</sup>

충북지역의 청년회도 이러한 문화운동에 충실하려 했음은 청주청년

43) 「장준 외 10인 판결문」, 형공 제269호, 1933년 6월 22일.

44) 강만길·성대경 엮음, 1996, 앞의 책, 창작과비평사, 62쪽.

45) 「장준 외 10인 판결문」, 형공 제269호, 1933년 6월 22일.

46) 강만길·성대경 엮음, 1996, 앞의 책, 창작과비평사, 48~49쪽.

47) 강호출, 1991, 앞의 글, 79~81쪽.

48) 박찬승, 1992, 『한국 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217쪽.

회의 설립총회 당시 발표했던 「취지서」의 내용에서 확인된다.

청년은 청년다워야 한다. 그는 사회의 주석이요, 시대의 목표다. 그의 성품이 墮落하면 사회의 衰運을 招하며, 그의 志氣가 진흥하면 사회의 융성을 이룰 것이다. 청년은 귀하니 존중함은 부귀와 힘의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흥안과 푸른 머리 발을 부러워함도 아니요, 오직 위대한 장래와 높은 희망이 있는 미래자인 까닭이다 …… 그 이름을 청주청년회라 하니 그 취지는 품성향상, 지식개발, 체육장려, 풍속개량의 4대 강령으로 주체를 삼아 타락에 있는 자를 구제코자 하는 도다.<sup>49)</sup>

즉 청주청년회는 그 설립 목적을 문화운동으로 수양운동, 풍속개량운동, 농촌개량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설립 취지는 충북지역 다른 청년회에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

지역 청년회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고자 청년회는 각종 사업을 벌이며 활동에 들어갔다. 그 청년회가 벌이는 사업 가운데 가장 활발했던 것은 단연 강연회, 토론회 등이었다.

이 강연회와 토론회는 청년회원들을 주 대상으로 하였지만, 때에 따라서는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대중들까지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 경우에는 연사를 타지에서 초빙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1) 경계가 엄중한 중에서 경성노총총동맹 간부 박일병을 초청하여 동군 앵좌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입추의 여지가 없이 가득차고 당지 경찰에서는 서장 이하 경찰까지 다수 임석하여 주장에 주의를 하였으며, 연사는 약 3시간 열변을 토하였다.<sup>50)</sup>

49) 『동아일보』 1920년 6월 18일. 이것은 독립운동, 반일운동과 사회변혁을 시도하는 일체의 정치운동, 변혁운동을 금하는 제한된 자유이였기에 나온 논리다.

50) 『동아일보』 1924년 6월 8일.

사례-2) 영동청년회는 청년회관을 건립한 후 서울에서 김철수, 최린, 안신행 등을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강연회의 제목은 김철수는 “사회진화와 협동운동”, 최린은 “반성”, 안신행은 “여자도 사람임을 자각하라” 등이었다.<sup>51)</sup>

사례-3) 청주청년회 주최로 당시 청남학교 내에서 특별 강연회를 열어 노동대회장 김광제씨를 초청하여 “不達目的之地 則不止”란 제목으로 열변을 토하였는데 당일 청중이 600~700명에 달하였다고 한다.<sup>52)</sup>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가 채택한 4대 강령을 홍보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하여 가부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회를 공개하여 청년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선도하려 하였다.

사례-1) 청주청년회는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일 행사를 통하여 청년회 활동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려 하였다. 청주청년회는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우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토론회는 청남학교에서 행해졌는데, 주제는 ‘사회발전에는 정신이나 물질이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4~5명씩 나누어 토론대회를 갖기도 하였다.<sup>53)</sup>

사례-2) 10일 청주 예배당내에서 청주청년회 강연부장 이호재의 사회 하에 청주청년회와 기독교청년 연합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가, 불가편의 연사가 열렬한 토론과 10여 인의 낭독은 수백의 청중에게 다수의 각성을 주었다. 그리고 “노동자가 인류사회의 주인공이나, 사역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편에는 청주청년회 김태희, 정규택가 속했고, 부편에는 기독교청년회 백영기, 이근태로 정했다.<sup>54)</sup>

또한 청년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나 단결심을 확고히 수단으로 체육

51) 『동아일보』 1923년 5월 9일.

52) 『동아일보』 1920년 7월 3일.

53) 『동아일보』 1921년 6월 9일.

54) 『동아일보』 1922년 7월 16일.

대회를 자주 개최하였다. 때로는 다른 지역 청년회와의 연대하는 방법으로 체육대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사례-1) 청주청년회의 2주년인 1922년 7월에는 운동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대전청년회와 지역 청년회의 규합을 위한 정구전을 갖기도 하였다.<sup>55)</sup>

사례-2) 영동청년회는 위생 사업을 필두로 5군 연합 정구대회를 개최하고, 소인극단을 조직하여 무주, 금산, 옥천 등을 순회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sup>56)</sup>

사례-3) 진천청년회에서는 야학연합 대운동회를 개최한 바, 학생 15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sup>57)</sup>

한편 청년회는 청년회 사업을 널리 알리고자 ‘문화선전’을 표방하고 순회로 강연이나 공연 등을 직접 진행하거나 이런 행사들을 후원하기도 하였다.

사례-1) 청주청년회에서는 오는 16일 『동아일보』후원 학우회강연단 일행을 환영하기 위하여 지난 7일 임시 총회를 열고 회장 유세면 이하 각 역원이 회합하여 설비위원으로 민대식 등 10여인을 선정하여 환영회장 및 여관 기타 환영준비에 바쁘다.<sup>58)</sup>

사례-2) 청주청년회는 청년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순국단을 조직하여 문화선전을 목적으로 각지를 순회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청주청년회에서는 금번 하기를 이용하여 소인연극단을 조직하여 문화연전을 목적으로 각지를 순회하는 일정을 잡았다. 그 일정은 진천은 8월 17~19일, 음성 21일, 충주 23일, 괴산 25일, 청천 26일, 보은 27일, 청산 29

---

55) 『동아일보』 1922년 7월 12일.

56) 『동아일보』 1921년 12월 13일.

57) 『동아일보』 1922년 6월 8일.

58) 『동아일보』 1920년 7월 15일.

일, 영동 30일, 옥천 31일, 대전 9월 1일, 강경 9월 2일, 공주 9월 3일, 조치원 9월 4일, 청주 순으로 하였다.<sup>59)</sup>

그밖에 청년회의 제일 주된 당면 사업은 수양운동과 신교육 보급을 위하여 야학이나 강습소를 설립하는 일이었다.

사례-1) 전에는 근근히 2교실에서 수십 명의 아동을 수용하기도 곤란했는데, 금년에는 여생도들도 수용하여 교수하고 있으나 완전한 교육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sup>60)</sup> 청남학교는 민족의식과 애국사상이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민족의식의 고취는 공립학교에서는 감히 다루지 못할 내용이었으나 청남학교에서는 수업 중에 은근히 교육하여 어린학생들에게 애국과 반일 감정을 부추겼던 것이다.<sup>61)</sup>

사례-2) 大成學校는 1922년 교동리에 창설되어 천도교의 사무원 徐昌洙, 金英植 2인이 전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보통학교에서 수용할 정도의 아동을 수용하여 현재 200여 명에 달하고 있다.<sup>62)</sup>

사례-3) 입학난이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었을 정도로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어도 학자금 등의 사정으로 학교교육에 접근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나자 지식 청년들은 이러한 교육난을 해소하고자 야학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사례-4) 괴산청년회에서는 괴산공보에 노동야학을 개시하고 수업을 한 후 일체 학비까지 동회에서 부담하기로 모집한 바 학생이 100여 명에 달한바 열심히 수업중이라 한다.<sup>63)</sup>

사례-5) 영동청년회에서는 청년회의 간부였던 장준이 계산

---

59) 『동아일보』 1922년 8월 19일.

60) 大熊春峰, 1923, 『淸州沿革誌』, 朝鮮印刷株式會社, 140~141쪽.

61) 전순동, 1999, 「일제기 청주지방의 민족교육운동」, 『중원문화논총』 제 23합집, 112쪽.

62) 大熊春峰, 1923, 앞의 책, 朝鮮印刷株式會社, 140쪽.

63) 『동아일보』 1920년 9월 20일.

학원이라는 사설강습소를 개설하여 배움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농민들에게 지식 보급을 행했다.<sup>64)</sup>

이렇게 교육기관인 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야학과 강습소 설치에 청년회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되었던 것이다.

청년회는 이러한 4대 강령을 실천하려는 사업 외에도 지역사회 사회사업으로 회관건립 사업, 위생사업, 지역사회활동, 학교설립운동, 신문사 지국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던 지역 청년회들은 대부분 불과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부진을 면치 못했다.<sup>65)</sup>

그와 같은 부진한 상황을 한 기자는 “존재하나 없는 것 같으며 하등의 활동 전개가 없으니 회비의 징수가 곤란하여 유지를 호소하고, 사업이 없어 활동난도 심하다.”<sup>66)</sup>라고 청년회의 유명무실한 상태를 지적했다.

“벌써 6년이 지났다. 외관상 회원은 300여 명이고 천여 원 가치의 회관과 보성의숙과 신문지국을 경영하고 있으나 그 외 필요한 사업이 많다. 그것은 지택체 교육, 풍속개량, 자선사업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런데 그 못하는 이유는 첫째, 회원 제군의 열심 부족, 둘째, 회중의 기본경제의 부족이다. 본회에 열심인자 일어나 있는가? 의연금을 낸 자 있는가? 입회한지 4~5년에 입회금 1원 또는 월연금 20전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회원이 얼마나 많은가? 기왕 설립한 청년회를 무의미하게 하지 말고 멸망치 않게 발전하게 하여 청년회를 부흥하게 하려면 제군이 좀 생각하여 보아라! 제군이 자수로 설립한 청년회를 이에 자수로 파괴하려 하는가? 근년에 신문지상으로 매일 보도되는 무슨 청년회 창립이니, 무슨 청

---

64) 『시대일보』 1924년 12월 13일.

65) 이 같은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으로 충북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박찬승, 1992, 앞의 책, 역사비평사, 200쪽).

66) 『동아일보』 1921년 3월 7일.

년회 조직이니, 무슨 청년회 부흥이니 하는 것은 제군들은 들어보지 못하였는가? 남은 창립을 하는데 우리는 기왕 설립한 아름다운 청년회를 무의미하게 멸망에 빠지게 할 수 있으랴? 부흥합시다. 우리 청년회를!<sup>67)</sup>

1921년에 이르러서는 청년회 활동은 기자의 지적처럼 멸망 상태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청년회 활동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서는 회비수납의 부진과 유지들의 약속위반 등으로 인한 재정난과 회원 내부간의 갈등 등을 꼽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주도층의 성격에 있었다. 청년회를 이끄는 주도층이 가지사 가신사(假志士, 假紳士)로 운동에 대한 전망이나 확고한 의지가 결여된 채 분위기에 휩쓸린 청년 지식층과 청년회장 등 명예를 탐낸 지방 유지들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이다.<sup>68)</sup>

### 3. 사회주의의 수용과 청년회운동의 분화

그러나 1921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3·1운동 이후 정의·인도·문화주의원칙 위에서 이루어지리라 기대했던 세계개조는 현실 속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파리강화회의, 국제연맹의 결성과정과정 이후 활동 등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주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문화운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발전하게 된다.<sup>69)</sup>

전자는 아직도 세계는 생존경쟁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으로 보며 사회진화론에 입각하여 ‘실력양성운동’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후자는 일본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는 사회주의

67) 『동아일보』 1925년 3월 26일.

68) 지금 단체의 대부분은 수면상태에 있는 것 같다...단체의 주축로 야학강습회가 한 곳도 없고 주야로 會集하는 회관도 그 간관은 어떤 사가로 변하였으며, 통상 회의 일에는 출석회원이 3분의 1도 차지 못하여 空散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동아일보』 1921년 12월 7일).

69) 박찬승, 1992, 앞의 책, 역사비평사, 203쪽.

영향을 받으면서 청년운동을 ‘계급운동’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전자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조선청년회연합회에 합류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회주의를 수용하여 청년회 운동 방향을 계급투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조선청년회연합회는 1920년 봄 전국 각지에서 청년단체들이 설립되자, 『동아일보』가 청년회의 연합을 제창하고, 서울에 각계 인사 53인이 모여 발기하며 1920년 12월 2일 창립총회를 열어 창립되었다.<sup>70)</sup> 조선청년회연합회는 부르주아 자유 민주주의적인 민족운동가들이 발기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 청년단체의 통일적 단결을 도모하고 민족운동의 발전을 기하려고 조직한 단체였다.<sup>71)</sup>

충북지역 청년회 중 청주청년회와 괴산청년회가 이러한 청년연합회를 단순한 청년운동 지도단체가 아니라, 초기 국내의 전국적인 민족운동단체라고 인식하고 가입하였다.<sup>72)</sup>

청년회연합회에서 1921년 4월 5일 총회에서 유세면은 의사장으로 선출되고, 김태희는 의사로 선출되기까지 하였다.<sup>73)</sup> 유세면은 조선청년회연합회 활동에 열심을 보여 1922년 4월 임원을 개선할 때 다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충북지역 청년회를 실질적으로 이끌던 청년들은 위싱턴 체제의 불가능성과 러시아 혁명과 식민지 민족운동에 대한 소비에트 정부의 지원 구호를 독립의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하며,<sup>74)</sup> 후자의 방향으로 청년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

70) 청년회연합회 간부들이 생각하는 청년회 사업의 목적은 ‘수양’ 곧 지적, 체 삼육에 있고, 그 가운데에도 특히 덕육 즉 품성도야에 있었다. 이같이 청년연합회는 비정치성을 강조하고 ‘수양단체’로서의 성격을 내세우고 있었다(박찬승, 1992, 앞의 책, 역사비평사, 232~233쪽).

71) 사회주의자인 정백은 청년회연합회에 대해 “3·1운동의 유산”으로 민족운동자와 정치적 지향의 인물들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며, 민족주의를 기초로 한 부르주아 자유주의 사상이 일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조선일보』 1925년 1월 1일).

72) 박철하, 2009,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6~17쪽.

73) 「大寒之後」, 『開闢』 제7호, 1921년 1월 1일.

74) 전상숙, 2004, 『일제시기 한국사회주의 지식인 연구』, 지식산업사, 20쪽.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충북지역에도 1920년대 이전부터 아래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신사상들이 수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례-1) 3·1운동 이후 정치와 경제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 해외에서 전하는 조선에 관한기사 등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일본 신문 구독자가 증가하여 『대판신문』, 『매일신보』 등의 구독자가 작년 25부에서 계속 증가하여 현재는 60부의 구매자가 있다. …… 최근에 우려스러운 것은 내지 유학생 내지 기타 신학문을 배운 청년 학생들에게 감염된 악사상과 이 사상의 광범위한 전파는 그 취체가 자못 곤란하여 장래 통치상 적지 않은 고로 금일에는 그것의 지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사료된다.<sup>75)</sup>

사례-2)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서울 및 주변 지역과의 왕래가 빈번해 지면서 이곳을 통하여 양반 유생들의 자식들이나 농촌의 청년들 사이에 공산주의 사상을 품고 실천하려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sup>76)</sup>

사례-3) 1920년대 읍내 읍치 이외에 지역 보통학교 교육기관을 통해 성장한 새로운 층의 학생들이 읍내의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sup>77)</sup>

사례-4) 이증각은 청주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과 일본에 유학한 후 귀국하여서는 김영만, 이종만 등과 조선민단<sup>78)</sup>을 조직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다가 검거되었다.<sup>79)</sup> 출옥

75) 朝鮮憲兵隊司令部, 1919, 『朝鮮騷擾事件狀況』, 262쪽.

76) 철도는 국철인 경부선이 도의 서남부를 통과하여 남부의 옥천, 영동 2개 군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사철은 충북선이 조치원과 청안 간에 개통되어 청주 동쪽과 청안까지 이로 인한 편의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77) 김승, 2000, 「한말일제하 동래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6, 133쪽.

78) 조선민단은 조선노동대회의 자매조직으로 김영만, 이종만, 이증각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독립운동단체였다. 그러나 노동대회 간사 박무병은 “때가 왔다” 임종연은 “죽음을 두려워 말라”라는 연설을 하여 “조선독립사상을 선전하고 명백히 치안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김영만 등이 배후 쩌의

후 서울파와 교류하였다. 그리하여 서울파 공산주의 그룹에 의해 당 창건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1922년 10월 20일에는 공산주의 그룹이 13도 오르그 대표를 정할 때, 충청북도의 오르그 부로가 되어 충청북도 지역에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려 노력하였다.<sup>80)</sup>

사례-5) 김영만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일본에 건너가 니혼 대학에 입학하였고 재학 중 노동대회 설립을 위해 입국하여 노동대회 회장 김광제와 충북 청주에 노동대회 지부를 설립하고 사회주의 보급에 힘썼다.<sup>81)</sup>

즉 신문이나 교통의 발달로 인한 교류, 유학생 신사상 전파활동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신사상들이 수용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대 초에 이르면 충북지역에 신사상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수용된 신사상은 아나키즘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지만, 단연 사회주의가 청년층과 지역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충북지역도 청년으로서 “입으로 사회주의를 말하지 아니하면 시대에 뒤진 청년”으로 느껴질 정도가 되었다.<sup>82)</sup>

1923년에 들어와 서울청년회 및 20여 개의 사회주의 청년단체는 전조선청년당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이 조선청년당대회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조선 유일의 혁명적 청년동맹을 창립하는 것이었다.<sup>83)</sup> 여기에 충북지역의 경우에는 영동청년회에서는 장준과 김태수가 충주 신니청년회에서는 서천순이 참석하였다.<sup>84)</sup>

---

협의로 체포되고 조선민단은 해산되었다(『동아일보』 1920년 8월 1일).

79) 「이중각 외 4인 판결문」, 대정9형공제1358호, 1920년 12월 23일.

80) 전명혁, 2006, 앞의 책, 선인, 144쪽.

81) 이현주, 2003, 『한국 사회주의세력의 형성』, 일조각, 221~222쪽.

82) 김경일, 1992,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 비평사, 395쪽.

83) 이현주, 2003, 앞의 책, 일조각, 246쪽.

84) 김준엽·김창순, 1969,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115쪽 ; 이현주, 2003, 앞의 책, 일조각, 250~251쪽.

1924년 4월 5일, 서울청년회가 주도하여 ‘조선노동대회’를 개최하려 하였다.<sup>85)</sup> 이에 충북지역에서는 영동노동동맹의 장준과 충주청년회의 이선규, 청주소작인조합의 최요섭, 영동 매곡청년회의 장철, 영동청년회의 김극수, 청주청년회의 서정기 등이 이 대회에 대거 참석하였다.<sup>86)</sup>

1924년 4월 21일, 조선청년총동맹이 223개 단체 대표자들과 700여 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창립하였다. 청년총동맹은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청년운동의 부분에 있어서도 종래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하던 조선청년회연합회를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던 전조선청년당 대회 및 신흥청년동맹과 통합하여 창립한 단체였다.<sup>87)</sup>

사회주의자들은 청충에서 주도권을 잡자, 그동안의 청년단체들이 진행해오던 운동방향을 민족운동에서 사회주의운동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청충은 신강령을 채택하였다.

1. 전조선 청년 대중의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 이익의 획득을 기함
1. 전조선 청년 대중의 의식적 교양과 훈련의 철저를 기함
1. 전조선 청년 대중의 공고한 조직의 완성을 기함

---

85) 「朝鮮勞農總同盟發起大會」, 경중경고비제4409-5호, 1924년 4월 19일. 이러한 노동-농민운동에 대한 인식은 크게 노동-농민운동이 통합조직으로서 노동총동맹으로서 결성되었던 것은 노동동맹에 대한 이해가 철저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거나(지수걸, 1998, 「식민지시대 농민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 근대 농촌사회와 농민운동』, 열음사, 432~433쪽) 인식과 노동운동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 아래 노동자의 헤게모니가 관철된 노동자-농민의 동맹관계를 의미하는 운동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것과 거리가 먼 미분화된 상태의 운동이었다는 평가(서중석, 1991,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90~91쪽)라는 인식이 있다 ; 조선노동총동맹 결성 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전명혁, 2006, 앞의 책, 선인을 참고하기 바람.

86) 「朝鮮勞農大會ノ件」, 경중경고비제4260호-5, 1924년 4월 15일.

87) 신용하, 2007, 『신간회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27쪽.

청충은 신강령을 통해서 사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청년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청년운동이 조선해방의 중심이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sup>88)</sup> 충북지역 청년회에서는 이를 환영하며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청충과 함께 하고자 영동·충주·제천·청주·괴산청년회가 청충에 가입하였다.<sup>89)</sup>

1925년 4월 또다시 서울과가 중심이 되어 전국의 사회운동자들을 모아 전국적 사상단체로 ‘조선사회운동자동맹’을 조직하려 하였다. 그러자 충북지역 영동, 충주, 괴산, 청주, 음성청년회는 이에 적극 동참하고자 창립대회에 참석하였다.<sup>90)</sup>

<표 12> 충북지역 조선사회운동자동맹 참가자 명단

지역	소속	참가자
영동	칠월회	장준, 김두수
충주	충주청년회	김영식, 이선규
괴산	괴산청년회	김용웅, 김태규

88) 박혜란, 1995, 「1920년대 중후반 청년운동과 조선청년총동맹」,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01쪽. “지금까지의 조선의 청년운동은 전민족적 전선에서 무산자운동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와서의 조선의 청년운동은 그 자체가 전민족적 협동전선에서의 선두대로서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인식 밑에서 전체운동의 일부분인 청년운동의 당면임무를 규정하려한다”고 하며 청충은 ‘순수무산계급청년만을 본위’로 했던 과거 청년운동의 경향을 비판하고 민족주의청년을 비롯한 각 계급계층의 청년 대중에게 청충의 문호를 개방하여 투쟁범위를 “부분적으로부터 전선적으로” 확대하였다(『조선일보』 1927년 8월 21일) ; 안건호, 「1920년대 중후반 청년운동과 조선청년총동맹」,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120쪽) 이렇게 1927년 조선청년총동맹은 ‘신운동방침’을 발표하고 운동의 방향전환을 꾀하였다(안건호, 앞의 글, 120쪽).

89) 「朝鮮青年總同盟發起團體發表=關スル件」 경중경고비제1800호-4, 1924년 3월 1일 ; 「朝鮮青年총同盟執行委員懇談會ノ件」, 경중경고비제6600호-1, 1925년 6월 15일 ; 「朝鮮青年총同盟銓衡委員會=關スル件」, 경중경고비제6786호-2, 1927년 6월 21일 ; 「朝鮮青年總同盟加入團體=關スル件」 경중경고비제3989호-3, 1924년 4월 21일.

90) 전명혁, 2006, 앞의 책, 선인, 394~400쪽.

청주	청주청년회	박달현, 서정기
음성	음성청년회	장기영

자료: 「朝鮮社會運動者同盟發起準備委員會ノ動靜二關スル件」, 경증경고비제4625호, 1925년 4월 23일.

이렇게 사회주의 청년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은 대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영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동청년회가 전조선청년대회 참여를 계기로 영동청년회를 민족운동 단체로부터 계급운동 단체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1923년 1월 이후 장준, 김행하 등 영동청년회의 일부 간부들이 영동소작인상조회 창립과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반목이 생기는 것을 기회로 하여 그해 7월 장준 등 일부 간부들은 청년회를 탈퇴하고 영동지역의 사회운동을 결집시켜 ‘칠월회’라는 사상단체를 조직했다.<sup>91)</sup> ‘칠월회’는 이후 전개된 농민들의 소작운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sup>92)</sup>

그러나 1925년에 이르러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충북지역 청년단체들은 보잘 것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단체가 되었다. 그나마 영동지역에서 청년회만 명맥을 유지할 뿐이었다.

“영동지역의 사회운동은 어떠하나? 영동의 사회운동이라고 하면 청년운동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다. 노동운동으로 말하면 한참 동안은 격렬했지만 반동세력의 압력으로 인하여 당분간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sup>93)</sup>

이처럼 청년회를 비롯한 제반 사회운동은 거의 보잘 것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반동세력의 압력<sup>94)</sup>이 크게 작용

91) 「장준 외 10인 판결문」, 형공제269호, 1933년 6월 22일.

92) 「朝鮮勞農總同盟發起會ノ件」, 경증경고비제4409호-4, 1924년 4월 18일.

93) 『시대일보』 1926년 1월 8일.

94) 1925년 사회주의 공산당운동이 급속한 성장에 놀란 일제가 가혹한 탄압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아직도 여타의 사회운동단체들이 계몽적 운동단체로서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 IV. 후반기 청년회운동의 성격 전환과 활동 (1926~1930)

### 1. 청년회운동의 성격 전환

1926년은 침체 상태에 빠져있던 청년회운동이 재기되고 방향을 전환하여 활동하는 계기를 제공한 한해였다. 1926년 6·10만세 운동과 제2차 공산당사건이 벌어지면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의 민족통일전선의 가능성이 열렸다.<sup>95)</sup> 또한 1924년 결성된 조선청년총동맹에서도 청년운동을 계급적인 것에서 전민족적 청년운동으로 개정하였다. 즉 과거 무산청년만으로 조직하던 제도를 폐기하고 종교청년과 민족주의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북지역 청년들은 이러한 때를 이용하여 국내의 정세변화를 파악하고 침체에 빠져있는 청년회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서울에 있는 사상단체들과 연계를 갖고자 하였다.

1926년 2월 서울과 고려공산동맹의 합법적인 사상단체인 전진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조선사회 각 부문 운동을 통일하여 전운동의 이론과 정책의 저장고가 될 만한 최고 기관으로서 ‘조선사회단체협의회’를 만들기로 결의하고 강령과 조직 규정을 발표하였다.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는 창립준비위원회가 조직 활동에 노력하며

---

을 가하여 조선농총동맹, 조선농민총동맹, 조선청년총동맹의 합법적 운동은 집회금지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공산당은 1925년 11월 ‘제1차 공산당사건’이라고 통칭하던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와 탄압으로 조직이 거의 붕괴되었다(신용하, 2007, 『신간회의 민족운동』, 독립운동사연구소, 124쪽).

95) 박철하, 2009, 앞의 책, 66쪽.

1926년 6월에 이르러 가입원을 반자, 많은 충북지역 청년회들이 가입원을 제출했으나 영동 칠월회만이 정식으로 가입하였다.<sup>96)</sup>

충남북 지역 사회운동가들 모임인 일선동맹<sup>97)</sup>이 대전에서 충남북지역 사회운동자대회를 열자, 충북지역 사회운동가 12명이 이 대회에 참가하며 지역 청년회운동을 민중운동으로 전환 확대하려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다.

그해 11월 15일에 있었던 정우회의 ‘정우회선언<sup>98)</sup>의 발표는 충북지역 청년회의 활동에도 ‘방향전환’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청천지역의 『동아일보』 한 기자의 신문 기사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우리의 운동은 국부적이었으며 파생적이었다. 그리하여 진술상 모든 문제는 기분을 떠나지 못하였다. 자연생장적으로 발달되어 전체의 운동은 파적투쟁에 대립화하여 적지 않은 고통을 느꼈다. 그럼으로 자연 생장적으로 부터 목적의 식적으로 지도 교화하여 운동에 방침을 제시적으로 일 계급을 비약하여 종래에 국한된 경제투쟁으로부터 전 계급적인 정치투쟁으로 방향 전환하는 과정에 당면하였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에 존재한 조선으로서 그 중에도 더 특수한 충북으로

96) 『동아일보』 1926년 4월 22일.

97) 일선동맹은 1925년 6월 17일에 충남·북 지역의 사회운동가들이 모여 설립한 사상단체로서 강령을 1. 아등은 무산계급운동의 원리원칙을 연구함, 2. 아등은 무산계급 운동의 실제적 이익을 위하여 노력함으로 그 단체의 색채를 드러냈다(『동아일보』 1926년 7월 9일).

98) 정우회 선언의 기본내용은 ① 과거의 종파활동을 청산하고 사상단체를 통일하여 전위적 행동을 하며, ② 대중의 교육과 조직화를 강화하여 일상투쟁을 제고하고, ③ 종래의 경제투쟁 형태로부터 정치투쟁 형태로 전환해야 하며, ④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향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로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는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적극적 제휴를 주창했다(『조선일보』 1926년 11월 17일).

서 이 문제를 어떠한 경로를 밟아서 장차 여하히 진취시킬 것인가? 함이 당면에 놓인 중차대한 문제임을 말미 필요 없다 할 것이다.”<sup>99)</sup>

즉 청년운동은 그 활동 목적을 자연생장적인 것에 둘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경제 투쟁으로부터 정치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라는 것이다.

1927년에 들어서도 청년회의 외부 사회주의 운동단체와의 연계 노력은 계속되었다. 그해 3월에 충남 대전에서 제1선 동맹(서울계)의 주최로 충남북 사회운동자 간담회가 개최되자, 충남북지역에서 활동가를 자처하는 25명이 모여 각자 자기가 활동하는 지역의 운동 상황을 보고하고 새로운 방향을 토의하였다.

이때 서울청년회 집행위원으로 이 모임에 참석했던 차재정은 계급 운동의 방향전환으로 “경제적 투쟁에서 정치적 투쟁으로.”의 필연성을 역설하였고, 영동청년회의 장준은 “불란서혁명과 압박정치에 대한 대중의 반발로 조선민족의 확고한 대중단결을 이루자”고 주장했다.<sup>100)</sup>

4월 10일, 다시 대전에서 일선동맹이 주도하여 충남북 지역 사회운동자대회를 개최하자, 충북지역 사회운동가들은 이곳에 참여하여 “사회운동자들이 방향전환을 하여 민족의 단결과 독립을 이루자” 라고 주장하다 불온으로 인식되어 해산 당하기까지 하였다.<sup>101)</sup>

1926년 이후에는 지역 청년회를 이끌던 혁신청년들은 본격적으로 자기 지역의 청년회를 문화주의적 민족운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적 민족운동으로, 경제적 민족운동으로부터 정치적 민족운동으로 방향 전환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5년 이후 피산청년회에도 안철수, 구창회 같은 일본이나 서울 등지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혁신청년들이 청년회에 가입하면서 변화를

---

99) 『동아일보』 1927년 11월 26일.

100) 朝鮮總督府警務局, 1927, 『朝鮮の治安狀況』, 4~5쪽 ; 朝鮮總督府警務局, 1929, 『朝鮮高等警察關係年表』, 218쪽.

101) 朝鮮總督府警務局, 1927, 『朝鮮の治安狀況』, 4~5쪽.

주도했다.

괴산지역 혁신청년들은 괴산청년회를 장악하기 위하여 정기총회를 통하여 기존의 간부들에게 청년회 부진의 책임을 물어 총사퇴시켰다. 그리고 혁신청년들은 중심으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며 청년회의 중앙체제도 회장중심체제를 집행위원제로 바꾸어 활동하기 용이하게 만들었다.<sup>102)</sup> 그리고 그들의 목적에 알맞게 강령도 새롭게 채택했다.

1. 우리는 史的法則을 순응하자
2. 우리는 과학적 이론을 함양에 노력하자
3.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하자<sup>103)</sup>

즉 괴산청년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청년회 강령을 수정하고 총역량을 집결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청년회가 괴산지역을 장악하기 위하여 괴산지역의 혁신 청년들은 그들의 활동지를 중심으로 지역 청년단체를 조직하게 하였다.

<표 13> 괴산지역의 청년단체

단체명	설립일	회장, 설립자	회원	활동 내용
괴산청년회	1920. 8	김태웅	20	노동야학, 강연, 사설 강습회
기독교청년회	1922. 1	명한, 최재익	60	
소수청년회	1925. 6	김상영, 김용응	60	위원제도 도입, 노동야학 운영
증평청년회	1925. 6	이봉주, 김현국		노동야학
청천청년회	1926. 7	이좌승	20	품성향상, 지식개발, 풍속개량
괴산소년군	1924	정진석		종교계

자료: 『동아일보』 1926년 10월 8일.

102) 『동아일보』 1926년 7월 4일.

103) 『동아일보』 1926년 7월 4일.

이 단체들은 청년 대중들에게 사상성을 주입하고 제고하기 위하여 강연회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노동야학을 비롯한 각종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괴산청년회는 더 나아가 충북지역의 대표적인 청년회가 되고자 하여 충북사회운동자간담회를 괴산청년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충북관내 각처 청년단체 사회단체에 있는 운동자 70여 명이 참석하여 청년회 집행위원장인 안철수의 사회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sup>104)</sup>

1. 청년운동의 문제: 각 지방에 청년회를 일층 내용 충실하여 청년회가 없는 곳은 그 조직을 축성할 것이다.
2. 신간회 문제: 적극적으로 신간회를 지지하고 인근에 그 조직을 축성할 일
3. 농민운동 문제: 각 지방 농민의 정황을 엄밀하게 통계적으로 조사하고 소작조합을 조직하고 소작인의 지위를 향상하고 교양운동에 힘쓸 일
4. 형평 문제: 재래의 차별적 관념을 타파하고 백정으로 하여금 형평사를 조직하여 해방운동 선상에 진출하도록 할일

괴산청년회는 정우회선언 이후 그 선언 내용을 실천하고자 이러한 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신간회 지회의 설립 추진과 괴산청년회를 해소하고 청년동맹으로 거듭나는 일을 동시에 추진했다.<sup>105)</sup>

이 일은 안철수를 비롯한 혁신청년들이 담당했다. 안철수는 현재의 괴산청년회로는 신간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괴산청년회를 分散無統한 단체로 규정하며, 괴산청년회를 해체하고 괴산청년동맹으로 거듭나려 하였다.<sup>106)</sup> 혁신청년들이 노력할 결과, 이듬해 1928년 2월 9일 괴산청년회는 괴산청년동맹으로 재탄생하였다.

---

104) 『매일신보』 1926년 8월 27일.

105) 「朝鮮靑年總同盟常務執行委員懇談會ノ件」, 京鍾警高秘第12481號, 1927년 11월 4일.

106) 『중외일보』 1928년 1월 7일.

괴산청년동맹의 창립대회가 완료되자, 괴산청년동맹과 신간회 괴산지회는 선전대를 조직하여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시위 순회하며 수천 명의 선전 배라를 뿌렸다.

준비위원장인 안철수는 임시의장으로 경기홍을, 임시 서기로는 김경렬, 유정규를 선거한 후 의사를 진행하며 맹원심사에 들어 139명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청년동맹 창립 준비위원 박일양의 간단한 취지 설명과 강령 채택이 있었다.<sup>107)</sup> 그 강령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우리는 조선 청년대중의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 이익의 획득을 기함

1. 우리는 조선청년대중의 의식적 교양과 훈련의 철저를 기함

1. 우리는 조선청년대중의 공고한 단결의 완성을 기함

이렇게 괴산청년동맹은 청년대중의 정치, 경제적, 민족적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임을 천명하였다.

괴산청년동맹은 당면 사업으로 괴산청년회 산하 기관이었던 보성의숙 운영에 힘썼다.<sup>108)</sup> 또한 괴산청년동맹원 중에는 기자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괴산기자동맹도 조직하였다.<sup>109)</sup>

청년동맹의 사업이 괴산 전 지역에 확대하는 방안으로 청년동맹 지부를 괴산 전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었다. 괴산청년동맹 지부의 설립은 산하 지역 동맹원들이 담당하였다. 연풍지부는 연풍에 거주하는 동맹원 황인국, 조기현 등이 준비하여 연풍면 노동 야학부 강당에서 의장 조세현을 선출하며 지부를 설립하였는데, 괴산 청년동맹에서는 이덕용이 취지 설명을 하였고, 박일양과 안호가 축사를 함께 했다.<sup>110)</sup>

문광면 대명리에서 지부준비에 분망한 가운데 18일 문광지부가 설

107) 『동아일보』 1928년 2월 9일.

108) 『동아일보』 1928년 3월 28일.

109) 『중외일보』 1928년 4월 28일.

110) 『동아일보』 1928년 2월 14일.

치 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의장 조종록의 사회로 의사를 진행할 때 박 일양의 취지 설명과 안철수의 축사가 있는 후 지부 세칙을 통과하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피선된 위원은 위원장 조종록, 위원 정명헌 외 1인이었다.<sup>111)</sup> 1929년 7월에는 증평지역에서도 청년동맹 지부 설립을 위한 7월 1일 설립준비를 마치고 3일 설립 총회를 가졌다. 위원으로는 송영섭, 김사용, 양희득, 송경섭, 이인구, 박성학, 최평국, 양원한, 최운옥 등으로 정했다.<sup>112)</sup> 품성향상, 지식계발, 풍속개량의 계몽적 성격으로 시작한 청천청년회에서도 1927년에 들어와 혁신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부흥을 꾀하였다.<sup>113)</sup> 청천청년회에서는 이좌승이 중심이 되어 1927년 12월 19일 시민대회를 열고 재만 동포옹호동맹을 결성하기도 하였다.<sup>114)</sup>

한편 피산청년동맹은 신간회 지회를 중요시 하여 지회 설립이 충북 전 지역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충북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원과 호응을 얻기 위하여 충북 사회운동자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sup>115)</sup>

영동지역에서는 七月會를 조직하며 청년회를 탈퇴했던 혁신청년들이 다시 청년회에 가입하게 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칠월회를 설립했던 장준 등 혁신청년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청년회운동을 실천하고자 청년회에 재가입하여 영동청년회의 변화를 추진했다.

청년회는 청년총동맹의 지령에 따라 칠월회 설립에 참여했던 혁신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자기 활동 지역 내에 청년회를 설립하였다. 그 결과 황간, 영동, 용화 등의 지역 청년회가 설립되었다<sup>116)</sup>. 그리고 그 청년회들은 청총의 명령에 따라 그들 청년회의 강령에 반영하였다. 아

---

111) 『동아일보』 1928년 2월 25일.

112) 『중외일보』 1929년 7월 1일.

113) 『동아일보』 1927년 3월 9일.

114) 『동아일보』 1927년 12월 19일.

115) 『동아일보』 1928년 1월 9일.

116) 「장준 외 10인 판결문」, 형공제269호, 1933년 6월 22일.

래는 양강청년회가 채택한 강령의 내용이다.

1. 아등은 사회진화의 필연적 법칙에 의하여 眞善 眞美한 합리적 사회의 건설을 촉진함
2. 아등은 현하 대중의 당면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
3. 아등은 상호부조의 원칙에 기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양과 훈련을 기함<sup>117)</sup>

이처럼 영동지역 청년회는 대중의 이익을 위한 단체임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이후 영동청년회는 조선청년총동맹 신강령의 지시에 충실히 단일노선으로 청년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각기 활동하던 영동, 황간, 용화청년회 및 영동노동회가 연합하여 영동청년총동맹을 조직하였다.<sup>118)</sup>

그리고 영동청년동맹은 첫 사업으로 청맹 산하 지역청년 대중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하여 노동야학을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

117) 『조선일보』 1926년 3월 24일.

118) 池中世, 1946, 『朝鮮思想犯檢舉實話集』, 신광출판사, 81쪽.

<표 14> 충북 영동군 노동야학 상황(1926)

단체	야학 명칭	인원	운영자
영동청년회	계산여자 야학	10	김태수, 김두수, 이관식
영동노동청년회	영동노동 야학	30	상동
노순명	묘동 야학	20	
양강청년회	묘동노동 야학	50	장준, 장철
양강구세군	양형노동 야학	35	상동
용화청년회	노동 야학	35	
황간청년회	황간노동 야학	36	최관홍, 추교경, 장하진
소열	? 노동 야학	10	
가동리	가무노동 야학	40	

자료: 『중외일보』 1926년 12월 26일 ; 「장준 외 6인 판결문」, 형공 제 125호, 1928.

그러나 영동청년연맹은 장준을 비롯한 중요 간부들이 제2차 공산당 사건과 관련 혐의로 1927년 구속됨으로써 흐지부지되어 버렸다.<sup>119)</sup>

영동지역의 청년회운동은 그들이 1928년 6월 무죄로 풀려나와 다시 활동하면서 재개되었다. 영동지역 혁신청년들은 1929년 1월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영동지역의 청년회운동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목적으로 사회운동자간친회를 개최했다.<sup>120)</sup>

이 사회운동자간친회 이후 영동청년동맹이 설립되었다. 영동청년회원들은 1929년 2월 기존의 면단위 조직체계를 변경시켜 군단위의 청년동맹을 조직했다.<sup>121)</sup> 그 후 야학 개설, 토론회 개최, 한재구제 연주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sup>122)</sup>

119) 「장준 외 6인 판결문」, 형공제125호, 1928.

120) 『조선일보』 1929년 1월 14일.

121) 『중외일보』 1929년 2월 19일.

122) 『중외일보』 1927년 2월 10일, 2월 27일, 5월 3일.

1930년 4월 30일 제3회 정기대회를 통해 영동청년동맹은 그 모습을 새롭게 했다. 제3회 정기대회에서는 기존의 기본사업 방향 외에 ‘노동, 농민, 신간회, 여성, 소년 등의 일반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노동야학 부흥의 건과 더불어 전군노동야학연합체 설치, 지부설치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였다.<sup>123)</sup> 그러나 일제의 방해와 책동은 청년동맹의 활동을 방해했다.

1927년에 들어오자, 청년회연합회 활동 이후 특별한 활동을 보이지 않던 청주청년회에도 김옥, 김한, 이종호 등 혁신청년들이 청주청년회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다.

그들은 청주청년회의 정기총회를 통해서 현재 청년회의 상태는 “사회사업은 고사하고 회체모습 유지방침이 묘연하다”고 개탄한 뒤, 기존의 간부들을 성적부진에 대한 책임으로 총사퇴시켰다.<sup>124)</sup> 이렇게 세대교체를 이룬 청주청년회의 부흥을 꾀하며 장래의 유지방침을 정하고 그런 내용을 담은 신강령을 발표하였다.

1. 오등은 신사회를 건설하자.
2. 오등은 건설한 사회의 이익을 돈독키 위하여 투쟁하자.
3. 오등은 우리들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자.<sup>125)</sup>

청주청년회는 새롭게 변화된 청년회의 활동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월 2회씩 간행하는 『湖聲』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기도 하며,<sup>126)</sup>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청주청년회는 1929년 2월 정기대회를 통하여 노동야학과 신간회 설립 유지 방침을 논의했다.<sup>127)</sup> 이후 청주청년회는 신간회 청주지회와

123) 『중외일보』 1930년 5월 3일.

124) 『중외일보』 1927년 8월 27일. 『湖聲』은 창간호의 발행도 당국의 검열로 압수당하고, 2호도 많은 부분이 삭제되었다. 그 이후 또 다른 발행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125) 『중외일보』 1927년 1월 9일.

126) 『동아일보』 1927년 8월 8일.

127) 『동아일보』 1927년 6월 11일.

연계하여 청년운동을 전개하며 청주에 설립된 다른 부문 단체들과도 연대 방향을 모색하였다.<sup>128)</sup>

<표 15> 청주 지역 사회운동단체(1929년)

단체명	설립시기	회장	창립 회원	현재 회원
신간회 청주지회	1927. 12. 23	결원	83	157
청주청년회	1921. 1	김태희	120	126
울랑농촌청년회	1928. 7. 7	곽홍원	50	50
산동청년회	1927. 5. 10	신건우	43	43
기독교청년회	1921. 6. 13	최창남	28	28
후방실업청년회	1925.	이종찬	23	28

자료: 『동아일보』 1929년 1월 10일.

그리하여 기독교청년회와 연합하여 강좌회를 주도하고, 역시 청주지역의 청년회도 기자단이 중심을 이루었으므로 청주에도 기우회를 조직하며 그들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노동자 농민문제해결을 위해 소비조합 설치, 借家賃引下運動 등을 추진하였다.

충주청년회는 1929년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다. 사실 충주청년회는 혁신적인 청년들이 전조선청년당대회에 참석하거나, 이선규, 황상일 등이 노동대회가 개최될 때(1924년 4월 15일) 충북지역을 대표로 참석하고,<sup>129)</sup> 1924년 4월 18일에는 이선규, 황상일은 다시 조선노동총동맹 발기대회 참여하고,<sup>130)</sup> 청년동맹에도 가입하며 청년회의 변화를 모색하였었다.<sup>131)</sup> 그러나 혁신청년들이 청년회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청년회는 유아무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128) 『중외일보』 1928년 4월 28일.

129) 「朝鮮勞動大會ノ件」, 京鍾警高秘第4260-5號, 1924년 4월 15일.

130) 「朝鮮勞農總同盟發起會ノ件」, 京鍾警高秘第4409-3號, 1924년 4월 18일.

131) 「朝鮮勞農總同盟發起會ノ件」, 京鍾警高秘第3989號, 1924년 4월 18일.

그러나 1929년 청주로 유학하여 청주청년회와 지회에서 활동하던 김석이 충주청년회에 전입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했던 것이다. 충주 청년회에서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종래의 일인 회장제를 폐지하고 집행위원제로 변경하며 혁신을 꾀하며, 충주청년회에서는 지난 10일 청년회 사무소에서 간사회를 개최하고 좌기 사항을 토의하였다. 토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무정리의 건
2. 소년현상 토론회 개최의 건
3. 임시총회 개최의 건
4. 회관 건축 의연금에 관한 건
5. 기타사항

이 토의에서 충주청년회는 1929년 이전의 활동이 계몽적 사회활동과 지역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젠 이것을 극복하고 정치적인 문제나 다른 사회, 청년 농민 단체 등과 연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충주청년회는 다른 청년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신간회 충주지회를 설립하고, 지회와 함께 청년회운동을 함께 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하며 충주형평사의 임시총회에 신간회의 황상일, 충주청년회의 이선규, 이영 등이 참가하여 이영은 ‘신간회 대 형평운동’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여 큰 환영을 받기도 하였다.

진천지역에서는 1922년대 초 진천청년회가 조직된 이후 지역 사회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진천청년회는 당시 유행하던 노동야학을 비롯한 이른바 계몽운동을 운영하자 경찰이 금지하였다.<sup>132)</sup> 그러나 청년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1928년 진천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신간회 진천지회를 설립하였다. 진천청년회는 진천지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1928년 4월 『동아일보』, 『조선일보』 후원으

---

132) 『동아일보』 1928년 4월 5일.

로 동아일보 8주년을 기념하여 청년회를 이끌던 박종영의 사회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연사 제씨의 열렬한 응변으로 진행 중 본보 지국장 김예환의 강연에 이르러 임석경관으로부터 강연중지를 당하고 성황리에 폐회하였다. 강연주제는 문맹퇴치-권태호·강태원·김예환이, 자산 등단은 남장우가 하였다.<sup>133)</sup> 이렇게 청년회와 신간지회의 발전을 도모했다. 그러나 1928년 6월 진천청년회 제10회 청충을 개최했는데 경과보고에서도 모든 것이 완비되지 못한 상태여서 경과보고도 불가능했고, 협의사항에서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새롭게 임원진을 선출하기는 하였지만 청년회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다.<sup>134)</sup> 또한 청년회를 이끌던 『조선일보』 지국장이며 청년회장이었던 강태원 등이 청년회관을 이용하여 기자단 위로 기생연주회를 개최하였다.<sup>135)</sup>

진천청년회에서는 청년회 정기총회를 통해서 현임원이 모두 사퇴하고 불량회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강태원 등을 제명시켰는데 이를 통해서 청년회와 기자단, 그리고 신간회 사이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이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후 동경에 갔다 돌아온 이규석이 진천에서 제활동에 다시 노력을 하자 당국에서는 다시 주목하다가 요리집에서 취중 발언을 문제시하여 진천에서 이규석을 검거하고 불경죄로 2년을 선고하였으나 결국 1년 언도를 받았다.<sup>136)</sup> 이렇게 이규석은 청충에 참여하면서 이를 진천지역에 적용시켜보려고 하였지만 경찰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그 활동이 차단되었다. 이후 진천지역의 기자들은 진천 청년회장이었던 한상혁, 부회장 박화서, 총무 이정희 등이 출석치 않은 상태에서 기생 연주회 사건의 책임으로 회장 한상혁은 사건의 책임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회의 신분을 제명시켰다.<sup>137)</sup>

그 후 진천지역에서도 진천신간회를 주도하던 언론기관의 단결을 보이지 않다가 언론기관 관계자의 친선을 도모하고 단체행동을 하기

133) 『동아일보』 1928년 4월 4일.

134) 『중외일보』 1928년 6월 4일.

135) 『중외일보』 1929년 6월 7일.

136) 『동아일보』 1930년 11월 25일.

137) 『중외일보』 1929년 6월 14일.

위하여 『동아일보』, 『조선일보』 양 지국기자로서 기자단을 조직하고 집행위원장 박성희, 집행위원으로 방인회, 안기필, 박장희로 정했다.<sup>138)</sup>

진천지역에서는 괴산청년회가 주최가 되어 실시한 충북사회 운동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진천청년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서 활동 강령을 결정하였다.

1. 청년운동의 건
2. 신간회 지회설치의 건
3. 소작운동의 건
4. 농민운동의 건
5. 형평운동의 건
6. 사회운동의 건

즉 진천청년회는 청년운동에 관한 사항부터 농민운동, 형평운동 등 제반 사회운동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1930년 2월 28일 진천 기청은 혁신총회를 열고, 1930년 11월 14일에는 진천기청이 토론회를 주도하기도 하였다.<sup>139)</sup> 1930년에는 진천 청년회에서도 혁신총회를 통하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가운데 건물과 간판만 유지되었던 침체된 상태에서 방황하여 오던 중 이를 유감으로 생각한 몇몇 청년들이 부흥시키고자 혁신총회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sup>140)</su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북지역 청년회를 이끌던 혁신청년들은 대부분 당지역의 기자로 활동하거나 전직 기자출신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그들은 충남북 지역 신문 기자들이 조직한 호서기자단을 청년회운동과 연계시켜 활동 하였다.

호서기자단은 1925년 4월 조치원에 거주하는 『동아일보』 조치원지국 기자인 맹의섭·전병수가 경성 천도교 강당에서 열린 ‘전선기자대

---

138) 『동아일보』 1929년 9월 22일.

139) 『동아일보』 1930년 11월 14일.

140) 『중외일보』 1930년 5월 25일.

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충남북지역을 아우르는 기자단을 조직하기로 발기하자, 충북지역에서는 기자단을 결성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창립일에는 맹의섭, 최영준, 성낙훈, 양희득, 구연달, 박원식, 정국래, 이화송, 금홍, 노덕호, 배성달, 김극수, 정형택, 엄혁, 김동환, 안석응, 오언영, 박완서, 박원식, 노서호, 정순택, 홍찬섭, 성낙훈, 조기형, 이종만, 이동욱, 맹의섭, 최영준, 김극수, 정국래, 윤귀영, 전근각, 이복재 등 충남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혁신적인 기자들이 대회에 참석하였다.<sup>141)</sup>

호서기자단은 처음 본부를 대전에 두었으나 1926년 11월 공주에서 개최된 제2회 대회에서 교통편의를 이유로 본부를 조치원으로 옮기고 조직의 명칭도 호서기자동맹으로 변경하였다. 정기 간담회에서 호서기자단은 기자 중심의 사회운동단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아래는 간담회 내용이다.

1. 언론의 권위를 시키기 위하여 우선 우리들의 친선과 협동을 통하여 조선민족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관의 발전과 그 권위를 신장시키는데 노력하고
2. 언론, 집회, 결사에 대한 구속 철폐와 아울러 신문 및 기타 출판물에 관한 법규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며
3. 민중운동에 대해서는 민중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면을 넓게 하여 본도 제공을 공정 신속하게 하기로 하며
4. 지방문화에 대해서는 문화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론을 환기하며
5.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과 현상을 조사, 적발하여 그것을 개선하도록 일반 여론을 환기시키며
6. 사회에 대해서는 사회상을 해부하고 적극적으로 강한 것을 누르고 약한 것을 돕기로 한다.<sup>142)</sup>

---

141) 『중외일보』 1927년 11월 27일.

142) 『동아일보』 1926년 11월 2일.

이처럼 호서기자단은 언론기관으로써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단체로서 활동하기를 자처하였던 것이다. 충남북지역의 청년운동가들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등 신문지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각 지방의 운동 상황을 파악하고 운동방침을 논의하거나 직접 지역운동을 이끌어 가는데 호서기자단을 활용해 나갔던 것이다.

## 2. 신간회 지회 설립 운동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세력이 민족협동전선으로 1927년 2월 17일 서울에 중앙본부 신간회가 창립되었다.<sup>143)</sup>

충북지역 청년회들은 신간회가 조선민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민족운동을 하고자 조직된 결사라고 인식하고,<sup>144)</sup> 정우회 선언을 전격 수용하면서 민족협동전선으로 조직되는 신간회를 창립하고자 하였다.

괴산청년회는 신간회지회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1927년 10월 30일, 괴산지회 설립준비위원으로 안철수, 김승환, 김용웅, 정진석 외 3인으로 정하고<sup>145)</sup> 분망하게 준비를 마쳐 11월 26일 드디어 설립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광경을 『매일신보』는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회관입구에는 一大松門으로서 장식하고 1,000여 명이 입장한 가운데 경성본부에서 온 홍명희, 이관용, 송내호, 김무삼 제씨를 맞이하여 개최한 후 임시 집행부 선정에 정진석씨가 임시 의장, 안철수, 김순기 양씨가 서기로 피선되어 안철수씨의 회록낭독과 경과보고가 있고서 본부 이관용씨의 취지 설명이 있는 후 각처에서 보낸 축전문을 낭송한 후 본부 송내호, 경성지회 김무삼, 호서기자단 노서호, 청주 신영우 제씨의 축사가 있었으며 지회 세칙 통과 후 임원 선거가 있는 후 기타협의 함에 이르러 27일 개최되는 충북운동가간담회를 후원

143) 이균영, 1993,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02쪽.

144) 「안철수 외 1인 판결문」, 刑控第422號, 1929년 2월 8일.

145) 『조선일보』 1927년 11월 19일.

하기로 기타는 일체 간담회에 일임하기로 한 후 3시에 만세 삼창으로 폐회하였다.

이때 괴산지회 임원으로 선출된 이들은 아래와 같다.

회장: 김용응  
부회장: 정진석  
서무부 총무간사: 김태웅  
상무간사: 김순기  
재무부 총무간사: 임원상  
상무간사: 이재화  
정치문화부 총무간사: 김순화, 상무간사: 박일양  
조사연구부 총무간사: 신연우, 상무간사: 경기홍  
선전조직부 총무간사: 안철수, 상무간사: 김용원  
간사: 유정규, 이덕용, 박창희, 이연배, 안성원<sup>146)</sup>

12월 청주지역에서도 청주청년회의 신영우, 구연달 외 유지 제씨로부터 오랫동안 동지를 규합하며 11월 24일 발기준비회를 거쳐<sup>147)</sup> 12월 22일 설립대회를 개최하였다. 임시의장 김태희의 사회로 신입회원의 보고를 필두로 취지설명, 세칙통과 임원선거 등을 순서대로 행하고, 지회장 손현수의 사회 하에 축전문을 낭송하였으며, 내빈으로 외부 박의병, 김무삼, 재만동포옹호회장대표 정현태 외 괴산신간회 대표 제씨의 축사가 있는 후 오후 1시에 만세삼창으로 폐회하였다. 이때 토의 사항으로는 많은 문제들을 언급하였지만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회관문제에 관한 건
2. 회원 모집 건
3. 회원 교양문제의 건
4. 일반정세 조사 건

---

146) 『매일신보』 1927년 12월 1일.

147) 『매일신보』 1927년 11월 28일.

5. 도내 각 군 지회 설립 축성 건
6. 청년 문제의 건
7. 농민 문제의 건
8. 재만동포 옹호문제의 건- 논의가 금지되었음

청주지회 청립대회에 참석했던 본부 임원들은 「과거, 현재, 미래」(홍기문), 「단일조직의 이론적 근거」(정헌태), 「신간회의 역사적 임무」(박의양), 「무엇을 할 것인가?」(김무삼) 등의 의미심장한 연설도 함께 했다.

청주지회가 설립된 12월 음성지회가 설립되었고,<sup>148)</sup> 1928년 2월에는 진천, 충주지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영동에서는 1927년 6월 설립준비위원회가 개최되고 준비위원회가 정해졌다가 일제의 방해로 설립되지 못했다.<sup>149)</sup> 1930년 1월 3일 준비위원회가 다시 열렸고,<sup>150)</sup> 같은 해 2월 20일이 설립일로 결정되었으나, 설립대회가 경찰에 의해 금지되어<sup>151)</sup> 결국 신간회 영동지회는 설립되지 못했다.

<표 16> 충북지역 신간회 지회상황

지역	설립 년.월.일	지회장	대표 회원	후보	회원수	회원수
괴산	1927. 11. 16	김용웅	이덕용	박일양		98
청주	1927. 12. 22	손현수	윤태용		51	117
충주	1928. 2. 9	한인석	김석		3	43
진천	1928. 2. 16	안석웅	한상혁	안순현		89
음성	1928. 2. 21	양준성	차윤희	장동윤	31	74
영동	1927. 6. 21		장준			39
제천						19

자료: 「新幹會代表會員選舉狀況ニ關スル件」, 京鍾警高秘第14794號, 1930년; 「新幹會本部ノ直屬會員狀況ニ關スル件」, 京鍾警高秘第14906號, 1930년.

148) 「新幹會本部總務幹事會ノ件」, 경중경고비제14148호, 1927년 12월 13일.

149) 『조선일보』 1927년 6월 21일.

150) 『조선일보』 1930년 1월 7일.

151) 이균영, 1993, 앞의 책, 역사비평사, 251~253쪽.

이렇게 1927년 말부터 1928년 초까지 충북지역의 10개 군 지역 중에서 7곳에서 신간회 지회가 설립되었다.

신간회 괴산지회장인 김용응은 괴산 소수면민으로 재력가의 후예로 지역유지로서 명망이 높았으며,<sup>152)</sup> 일찍이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아 조선사회운동자동맹 발기인 겸 준비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사회주의적 민족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청주지회장인 손현수는 외국어학교를 졸업하고 1913년 충북 보은군 수로 부임하여 1922년까지 재직하던 관료출신 청주지역 유지였다.<sup>153)</sup> 충주지회장인 한인석은 충주지국 『중외일보』 신문기자이었으며,<sup>154)</sup> 음성지회장인 양준성은 음성 천도교지부를 이끌던 지역 유지이었고,<sup>155)</sup> 진천지회장인 안석응은 당지 『동아일보』 신문기자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회를 이끌어 가는 대표회원 및 후보위원들인 이덕용, 윤태용, 김석, 한상혁, 차윤희 등은 해당 지역 신문기자 출신으로 당지 청년회의 전환을 주도했던 혁신청년들이었다.

이렇게 설립된 신간회 지회들은 청년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갔다.<sup>156)</sup>

152) 『매일신보』 1917년 4월 12일.

153) 천야행무, 1923, 『충북산업지』, 일동인쇄주식회사, 198쪽 ;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 1922년판.

154) 『중외일보』 1930년 3월 29일.

155) 「天道敎人大會ニ關スル件」, 경중경고비제9124호-2, 1925년 8월 16일.

156) 신간회의 활동을 조선총독부에서는 크게 총독정치의 비방하는 것으로 1. 집회, 기타에서의 민족해방, 2. 신사회 건설, 3. 제국주의 전쟁 반대, 4. 약소민족의 국제적 단결, 5. 소비에트 연방 옹호, 6. 중국혁명 성원, 7.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획득, 8. 교육 산업정책의 반대, 9. 공과금의 반대, 10. 각종 지방시설의 논의, 11. 학생선동으로 동맹 휴교, 12. 불온문서 살포로 민중 선동, 13. 지방에 안경을 저해하는 불온단체로 파악한다(朝鮮總督府警務局, 『治安狀況』, 1927, 19~20쪽) ; 그러나 이균영은 신간회 입장에서 추진한 활동은 크게 사회적, 정치적 활동으로 분류하고 사회적 활동은 ①계몽운동, ②일종의 생활, ③생존권수호운동으로 분류하고 계몽운동의 내용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웅변대회와 연설회 등으로 보았다. 따라서 연설회의 주제는 신간회를 선전하고 신간회를 통하여 단결을 이루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었다. 야학을 운영하는 것도 대표적인 방법이다. 또한 일종의 생활, 생존권 수호운동도 중요한 사회적 운동이었다. 그중에 전

### 3. 광주학생운동 동참 운동

1929년 11월 3일 광주지역에서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였다. 학생운동의 여파는 곧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전개하던 학생들은 “신간회와 청충에 민족적 환기를 호소하자”라고 하며 간절하게 신간회나 청충이 합류 해주기를 요구했다. 이에 신간회나 청충에서도 이 운동을 민족적 운동으로 전환시키려 전국의 지회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신간회는 “본부와 동일하게 행동하라!”, “본부와 함께 곧 행동으로!” 등의 지령을 발송하며, 지방 지회들의 운동 동참을 독려했다.<sup>157)</sup>

그러나 일제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간회를 중심으로 한 주의자들의 일제 검거를 하며 신간회 본부 비밀지령을 우송한 것은 수배하고, 지방 지회 간부 기타 주의자들의 동정을 엄밀하게 조사한 결과 12월 13일 정오에 광주, 청주, 충주, 진천, 괴산, 예산, 장성, 대구, 안동, 김천 등 19개 지회에 지령서를 송달 전에 발견하여 압수하고 계속 주의

---

자는 민중들이 더 나은 경제생활 영위를 위한 방편과 관계되는 것이며, 후자는 가진 계층, 계급으로부터 생존에 관계되는 권리를 확보하려는 운동으로 보았다. 그리고 생활수호운동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비조합의 설치, 차가문제 논의도 중요한 이 분야의 한 가지 사업이었다. 생존권수호운동은 반제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으며 대부분이 농민, 노동운동 및 사상운동과 신간회 운동이 결합된 형태였다. 농민의 소작료와 소작권 보호 문제에 대한 개입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포괄적으로 보며, 정치적 활동이란 식민지 조선에서의 정치적 활동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지만, 정우회선언에서 ‘정치적 투쟁’선언에 있었던 이후 이 용어는 흔하게 사용되는데 정치적 투쟁이란 첫째 억압과 착취를 벗어나려는 자유에 대한 생생한 요구, 둘째 민족문제에 포괄 될 수 있다. 정치문제에 대한 정책안으로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에 대한 요구였다. 각종 자유에 대한 요구는 자연히 그것을 억압하는 법률의 철폐와 관계되는 것이었다. 단결권, 파업권보장, 8시간 노동제 실시, 소년, 부인의 야간 노동과 갱내노동운동 금지, 등에 대한 요구 역시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였다. 한편 조선인 차별 문제, 군대 주둔 반대, 조선인 본위의 교육과 조선어 사용, 등은 한층 민족문제에 접근한 정책안이라고 보았다(이균영, 1992, 앞 책, 참조).

157) 이준식, 2000, 「광주학생운동과 민족운동세력」, 『광주학생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168~200쪽.

중에 있다.”며 광주학생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지령문을 압수하고<sup>158)</sup>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그리하여 지역청년회와 신간회 지회는 광주학생운동에 동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광주학생사건 발생 이후 도내 각 학교에는 하등의 조짐이 없었다.”라고 자신감 있게 표현했다. 1930년에 이르러 충북지역에서도 청년단체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광주학생운동이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충북지역 동참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례-1) 1930년 1월 21일, 청주 공립고등보통학교 3년생 이하 전학생 200여 명이 대열을 이루고 교외로 탈출하여 농업 학교 학생 60~70명과 합류하여 시내와 무심천 등지에서 “조선정신의 소유한 자는 백의혼을 감싸는 검은 구름을 격파하고 광명자유의 길을 밟고 용감히 전쟁으로 나아가자!, 확고히 저항하자!”, “조선민족은 자각하고 2천만 동포의 자유를 구하자! 만세! 만세!” 등의 내용을 담은 삐라 200여 매를 배포하며 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운동을 시작하였다.<sup>159)</sup>

사례-2)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괴산 청천공립보통학교 4년생 급장 우병철(21세)이 같은 학교생인 김세열에게 권유를 받아 1월 24일 학교 내에서 다른 생도들과 함께 25일 시일을 이용하여 불온한 삐라를 유포하고 군중을 선동하기 위해 삐라를 제작하였다. 그들은 1월 25일 괴산군 청천면 시장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괴산공립학교 보통학생 6년생 조태용 외 5명이 공모하여 “조선학생 만세!”등을 기재한 불온 인쇄물을 살포하고 시위를 나설 계획 중인 것을 관할서에서 발견하였다. 26일 야간 취조에서 이미 제작하여 갖고 있던 “조선학생 만세!” 등의 인쇄물 170매를 압수하였다.<sup>160)</sup>

사례-3) 1월 27일 괴산 공보 학생들이 만세시위를 계획한

---

158) 조선총독부경무국, 1979, 앞의 책, 풍매사, 68쪽.

159) 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朝鮮の治安狀況』, 89~90쪽.

160) 朝鮮總督府警務局, 1979, 『光州抗日學生事件資料』, 風媒社, 177쪽.

다는 정보를 입수한 일본 경찰 10여 명이 이날 학교를 포위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일일이 수색하여 5학년생인 조태용이 지니고 있던 붉은 잉크로 쓴 격문 100여 매를 압수하고 검속하였다. 일경은 28일에도 계속 검색하여 신창범 등 7명을 체포하였다. 이때 여기에 참여한 권한성, 임현상 2명은 괴산보성의숙 졸업생으로서 배후에 같은 학교 경영자인 괴산지회 집행위원 안철수 일파의 책동으로 의심하면서 바로 내사하였다. 그 결과 1월 29일 엄중한 경계를 가하며 권한성 외 2명을 구류처분 하였다.<sup>161)</sup>

사례-4) 2월 7일에는 충주 대소원보통학교에서 6학년 18명, 3·5학년 9명, 총합 27명이 그곳의 시장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 후 다시 청주, 괴산 등지에서 다시 뼈라를 배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도내 전체에 파급되었고,<sup>162)</sup> 이 사건으로 『동아일보』 분국기자 충주지회 간부인 박의양은 사회주의자로 지목 받으며 시위 선동죄로 구류처분을 받았다.<sup>163)</sup>

사례-5) 2월 10일에는 음성에서도 음성공립보통학교 5학년생인 박승원 외 6명은 장날을 기해서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비밀리 약속하였으나 경찰에 발각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2월 16일 음성의 무극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의 불온기획을 탐지하고 그 6명을 조사한 결과 이 모두는 경성고학생이라고 말하는 서상순이 후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1930년에 들어와 청주지역을 시작으로 청년회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만세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자 일제는 이러한 시위의 주도 혐의를 신간회나 청총의 지도를 받는 청년회 두고 무리하게 내사하여 괴산지역에서는 혐의를 발견할 수 없자, 안철수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을 구류처분했고, 충주지역에서

161) 朝鮮總督府警務局, 1929, 『光州抗日學生事件資料』, 風媒社, 178쪽.

162) 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朝鮮の治安狀況』, 89~90쪽.

163) 『조선일보』 1930년 1월 20일. 박의양은 『동아일보』 충주지국 대소원 분국 총무 겸 기자였다(『동아일보』 1930년 2월 3일).

는 충주지회의 박의양을 지목하며 시위선동죄로 구류처분을 내리기도 했던 것이다.

## V.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1920년대 전반기부터 시작되어 1930년까지 충북지역에서 전개된 청년운동의 전개 양상과 특징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20년대에 들어와 충북지역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는 유지들과 신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청년회를 설립하였다. 그 청년회는 당시 시대적 조류를 따르는 문화운동의 실행기관을 자처하며 품성향상, 신교육 보급과 풍속개량, 농촌개량 등의 목표를 실천해 나갔다.

둘째, 그러나 곧 문화운동의 사조가 퇴색하면서 청년회의 성격이 분화될 때 청주와 괴산 청년회에서는 민족적인 방향으로 청년회를 유지해 보려했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청년회는 새롭게 수용되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서울청년회가 주도하는 각종 대회에 참여하였다.

셋째, 조선청년총동맹이 창립되면서 새로운 혁신청년들은 자신들이 주재하는 청년회의 성격 전환을 시도하는데 그러한 변화가 잘 나타난 지역은 대개 지역 활동가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벌인 영동, 괴산, 청주 지역 같은 곳이었다.

넷째, 대외적으로 서울과가 추진하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에 참여하거나 충남북 사회운동가들의 모임인 일선동맹에 참석하면서 전국적 조직과 함께 연계하여 활동하려 하였다. 특히 청년총동맹의 신강령의 영향으로 기존 청년회를 청년총동맹의 지부로 전환시키고 경제투쟁을 정치투쟁으로 전환시키려 했지만 그런 노력으로 지부가 설치한 곳은 영동과 괴산지역뿐이었다.

다섯째, 혁신청년들이 청년회를 장악한 곳에서는 민족통일전선을 추

구하는 방침에 따라 신간회를 창립하였다. 혁신청년들은 청년회와 신간회를 연계시켜 활동하기 위하여 민족운동에서 소외되었던 민족주의적 인사들을 영입하여 신간회의 지회장으로 하고 혁신청년들은 실무를 장악하면서 신간회를 청년회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여섯째, 청년회는 1929년 광주에서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자, 신간회와 연계하여 학생운동을 충북지역에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이 일제의 방해로 실패로 돌아가자, 1930년 초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이용해서 학생 만세시위를 주도해 나갔다.

그러나 충북지역 청년운동은 많은 한계점을 노출시켰다. 첫째, 청년회를 이끌어 가던 그 청년들은 대개 부르주아적인 신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농민이나 노동자 의식을 갖은 이들이 아니었다. 따라서 80% 이상이 농민이고 아직 봉건적인 의식수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충북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사회주의적 운동이었다.

둘째, 내부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혁신청년들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운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내부동력으로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민족운동을 제대로 이끌 수 없었고, 외부적으로는 일제의 집요하고 강력한 지속적인 탄압이 작용한 결과, 민족운동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어설픈 부르주아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에 민족운동 차원에서 전개하려던 사회운동은 역량부족과 일제의 탄압이라는 직·간접적인 물리력의 작용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없었다.

[논문접수 : 2015.10.31, 심사시작 : 2015.11.10, 심사완료 : 2015.11.20]

주제어 : 청년회, 조선청년총동맹, 호서기자단, 신간회,  
광주학생운동, 혁명적 농민조합

【참고문헌】

『개벽』

『동아일보』

『매일신보』

『삼천리』

『시대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朝鮮總督府警務局, 1922, 『朝鮮の治安狀況』.

朝鮮總督府警務局, 1933,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朝鮮總督府警務局, 1927, 『高等警察關係年表』.

朝鮮總督府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1938, 『思想彙報』 7.

朝鮮總督府, 1934, 『朝鮮の聚落』(前篇).

忠淸北道, 1928, 『忠淸北道要覽』.

忠淸北道, 1932, 『道勢一斑』.

朝鮮總督府, 1930, 『朝鮮國勢調查報告』道篇-忠淸北道.

李如星·金世鎔, 1932, 『數字朝鮮研究』 제5집, 世光社.

渡部學, 1984, 『韓國近代史』, 동녘.

善生永助, 1926, 『朝鮮の人口研究』, 조선인쇄주식회사.

朝鮮總督府, 1923, 『朝鮮に於ける内地人』 제2집.

大熊春峰, 1923, 『淸州沿革誌』, 조선인쇄주식회사.

朝鮮憲兵隊司令部, 1919, 『朝鮮騷擾事件狀況』.

京畿道警察部, 1929, 『治安狀況』.

朝鮮總督府警務局, 1979, 『光州抗日學生事件資料』, 風媒社.

서중석, 1991,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김경일, 1992,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비평사.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 선우기성, 1973, 『한국청년운동사』, 금문사.
- 김준엽·김창순, 1969,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 스칼라피노·이정식, 1986,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돌베개.
- 강만길·성대경 엮음, 1996,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 대웅춘봉, 1923, 『청주연혁지』, 조선인쇄주식회사.
- 서중석, 1991, 『한국근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 조선농회, 1944, 『조선농업발달사』(정책편), 선광인쇄주식회사.
- 전상숙, 2004, 『일제시기 한국사회주의 지식인 연구』, 지식산업사.
- 이준식, 2008, 『조선공산당 성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최유리, 1997, 『일제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 지중세, 1946, 『조선사상범검거실화집』, 신광출판사.
- 박결순, 1996, 『괴산지방 항일독립운동사』, 괴산문화원.
- 이균영, 1993,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 지수걸, 1993,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 역사비평사.
- 박철하, 2009, 『청년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배성찬 편역, 1987, 『식민지시대 사회운동론 연구』, 돌베개.
- 한국역사연구회, 1995,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 박결순, 2012, 『충북지역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 한국역사연구회·전남사학회, 2000, 『광주학생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 한규무, 2009, 『광주학생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임경석, 2009, 『초기 사회주의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이준식, 2009, 『조선공산당 성립과 활동』,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 한국역사연구회 1930년대연구반, 1991,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한길사.
- 이현주, 2003, 『한국 사회주의 세력의 형성』, 일조각.
- 전명혁, 2006,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운동연구』, 선인.
- 한대희 편역, 1986, 『식민지시대 사회운동』, 한울림.
- 김현구, 2006, 『애국지사 일석 김태희』, 일석회.
- 노영택, 1990, 「민립대학설립운동」, 『국사관논총』 11.
- 안건호, 1995, 「1920년대 전반기 청년운동의 전개」, 『한국 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 전순동, 1999, 「일제기 청주지방의 민족교육운동」, 『중원문화논총』 제2·3합집.
- 박철하, 1995, 「한국청년운동사의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 지수걸, 1999, 「일제하 충남 조치원 유지 맹의섭(1890~?)의 ‘유지기반’과 ‘유지정치」, 『역사와 역사교육』 제 3·4호, 웅진사학회.
- 오미일, 1992, 「적색교원노조사건과 부산지역 조공 사회당에서의 활동」, 『역사비평』 1992년 봄호.
- 강신욱, 2000, 「1920년대 괴산지역 청년운동」, 『괴향문화』 제8집.
- 주계윤, 2011, 「1930년대 충북지역 관제청년단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0집.
- 박천우, 2001, 「일제하 수원지역의 항일독립운동 연구 학생·청년·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10.
- 김승, 2000, 「한말·일제하 동래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6.

- 조종섭·최이돈, 2000, 「일제하 대전지역의 청년운동」, 『교육연구』 6.
- 조찬석, 1985, 「1920년대 경상남도지방의 청년운동」, 『인천교대논문집』 19.
- 조찬석, 1991, 「1920년대 충청도지방의 청년운동」, 『인천교대논문집』 25.
- 최동일, 2005, 「신간회 괴산지회의 조직과 활동」, 『충북사학』 15.
- 전순동, 1999, 「일제기 청주지방의 민족교육운동-청남학교를 중심으로」, 『중원문화논총』 제2·3합집.
- 장승순, 2013, 「일제 강점기 충북지역의 농촌사회 변동과 농민운동」, 『중원문화연구』 20.
- 지수걸, 1999, 「일제하 공주지역 유지집단의 도청이전 반대운동」, 『역사와 현실』 20, 역시비평사.
- 지수걸, 1998, 「식민지 시대 농민운동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근대농촌사회와 농민운동』, 열음사.
- 박철하, 1995, 「한국 청년운동사의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한국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 장승순, 2014, 「충북지역 신간회 괴산지회 활동의 성격」, 『중원문화연구』 22.
- 한상구, 1994, 「1926~28년 사회주의 세력의 운동론과 신간회」, 『한국사론』 32.
- 이애숙, 1995, 「1920년대 전남광주지방의 청년운동」, 『한국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 강신욱, 2000, 「1920년대 괴산지역의 청년운동」, 『괴향문화』 제8집.
- 강호출, 1991, 「식민지시대 충북영동지역 농민운동연구」, 『사충』 제39집.